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함께하는 FTA

January 2015 vol. 32



2015년 통상환경 3대 이슈

한·중 FTA 심층 진단 및 활용 전략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 인터뷰



2015년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일출과 달리 셀카봉이 등장한 것이 이채롭군요.
2014년 한국의 FTA는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이 타결됐고,
호주, 캐나다(2015년 1월 1일)와의 FTA가 발효됐습니다.
올해는 협상 타결된 FTA의 조속한 발효와
TPP, RCEP 등의 메가 FTA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모두 힘차게 달려갈 준비 되셨나요?
‘함께하는 FTA’가 올해도 함께 하겠습니다.

글 김보람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팅크웨어 해외사업부 서혜진 대리
지난 여름 FTA와 한바탕 전투...
이젠 FTA가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지난해 말 방영된 드라마 ‘미생’ 3화에는 주인공이 속한 영업3팀 전체가 공장으로 내려가 온갖 서류들을 뒤지느라 비상인 장면이 나온다. 드라마의 배경은 2012년 하반기로, 주인공 장그래의 선배인 김 대리가 “한·EU FTA가 발효(2012년 7월 1일)되면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달라”는 바이어의 요청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팀 전체가 공장으로 내려가 수출용 극세사 먼지필이에 사용된 재료들의 구매처를 확인하느라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뒤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은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에 필수적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받을 수 있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를 생산하는 팅크웨어의 해외사업부 서혜진 대리(29)도 지난 여름 FTA와 한바탕 전투를 치렀다. 지난해 4월 디자인실에서 해외사업부로 부서를 이동했는데, 무역업무에는 초보인 상태에서 3개월만에 북미지사에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다. 그간 캐나다 수출 시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보내기는 했지만, FTA 원산지증명서는 그리 간단치 않았다.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원산지확인서 등을 모두 챙겨야 했던 것이다. 회사 차원에서도 FTA 활용은 처음이었고 사내에 FTA 업무 경험자도 없었다. 막막하던 차에 무역협회에서 FTA무역종합센터를 소개해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 담당관세사가 방문컨설팅을 통해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알려줘 짧은 시간에 FTA를 숙지하고 선적일정에 맞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보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간 북미지사로 보내던 HS코드의 오류도 바로잡았다. 내친 김에 10월에 개최된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참가해 우수상(공동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런 FTA와의 인연이 서 대리에게는 남다른 기억으로 남았다. “뉴스에서 FTA라고 하면 남의 일 같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FTA를 스스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돼서 뿌듯하네요. 특히 ‘미생’의 한·EU FTA 장면에서는 주인공처럼 무역업무를 하는 입장이라 더 공감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FTA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제부터 ‘함께하는 FTA’를 열심히 보겠다”며 제작진에 응원 의 말을 남겼다.☺



28

contents

January 2015 vol. 32



COVER STORY

2015년 1월 현재 한국은 세계 53개국과 15개(발효 11, 서명 1, 타결 3)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미국, EU,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대부분과 FTA를 맺으면서 이제 한국의 무역은 FTA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호는 한국이 맺은 FTA가 시계태엽처럼 정교하게 돌아가는 모습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표지일러스트 허라미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5년 1월 9일(통권 32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People

- 01 톱크웨어 해외사업부 서해진 대리

Issue Focus

- 04 한눈에 보는 한국의 FTA 현황
- 06 2015년 통상환경 3대 이슈
- 08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의 주요 내용과 의의
- 10 한·베트남 FTA 타결과 한·ASEAN FTA의 과제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 12 2014년 수출입 실적 및 평가

Cover Story

- 14 한·중 FTA의 의미와 남은 과제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소장
- 16 한·중 FTA와 중국시장 진출 전략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 18 한·중 FTA와 중국 콘텐츠 산업 진출
오광진 한국경제신문 중국전문기자
- 20 인터뷰: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

FTA Cartoon

- 23 천년거목의 뿌리처럼
안종만

FTA Lounge

- 24 2014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제다
- 26 지상중계:
한·중 FTA 대응방안 세미나
- 28 지상중계:
제1회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전국 학술대회

FTA Study

- 30 자유무역의 역사:
②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에 관한 협정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 32 세계의 FTA:
②베트남의 FTA 추진동향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FTA Column

- 34 원산지 사후검증
에피소드로 보는 시사점
강동구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실)

Art & Culture

- 36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③젊은 예술가의 초상
- 38 수제 기타 제조명인
엄태홍·엄홍식 부자

Information

- 40 FTA 정보/독자의 소리

FTA News

- 42 한·캐나다 FTA 1월 1일 발효 등

Infograph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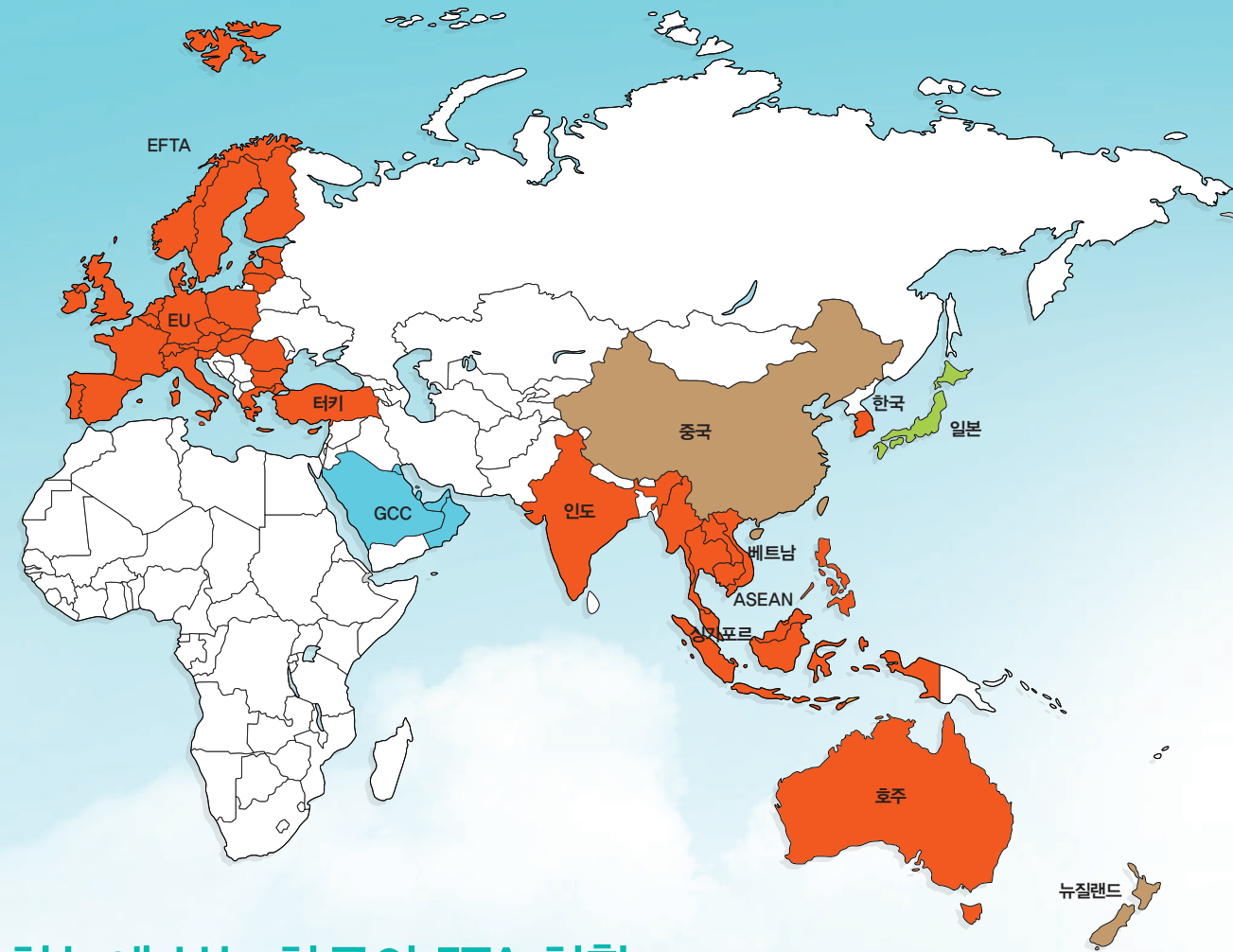
- 44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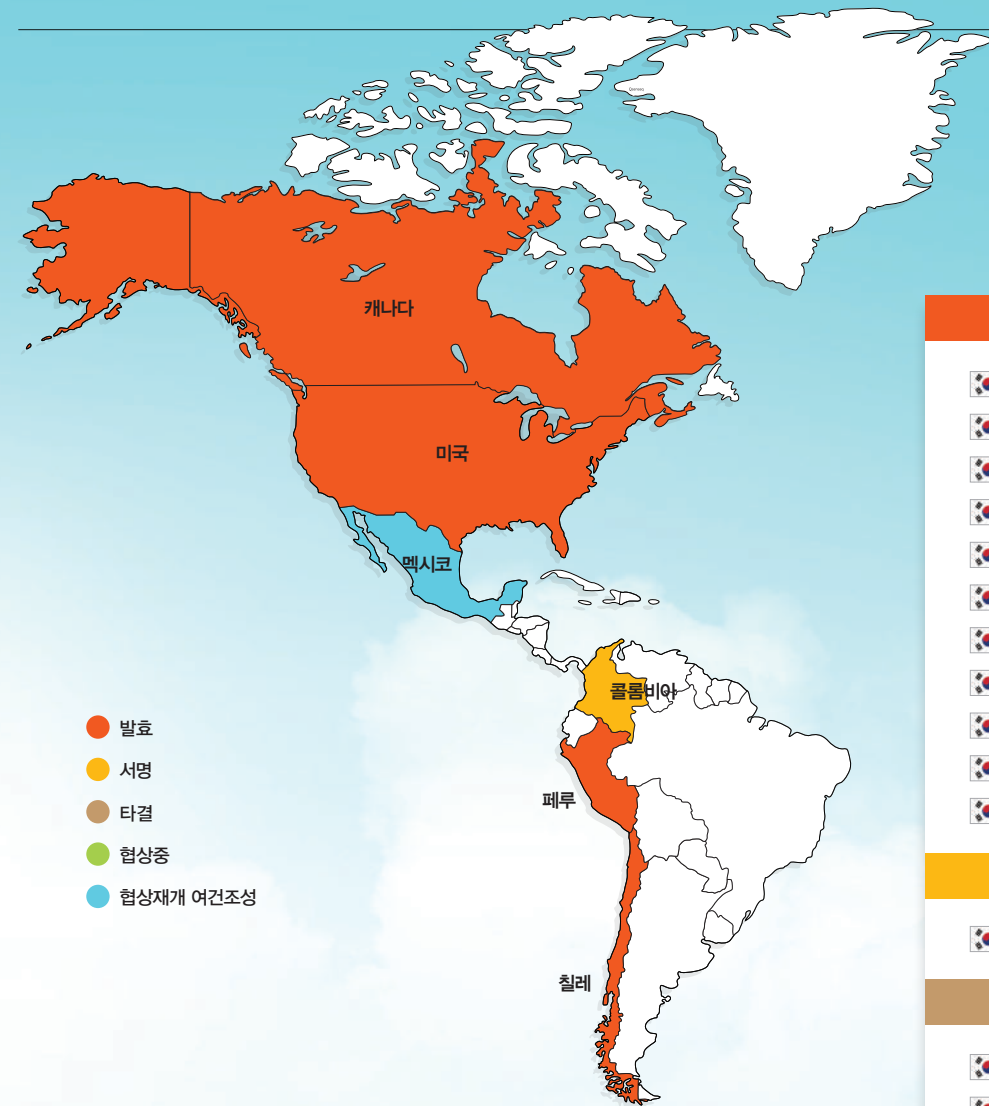
20



38



한눈에 보는 한국의 FTA 현황



- 발효
- 서명
- 타결
- 협상중
- 협상재개 여건조성

발효된 FTA(49개국)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 한·ASEAN CEPA
- 한·인도 FTA
- 한·EU FTA
- 한·페루 FTA
- 한·미 FTA
- 한·터키 FTA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서명된 FTA(1개국)

- 한·콜롬비아 FTA

타결된 FTA(3개국)

- 한·중국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베트남 FTA

협상중인 FTA(15개국)

- 한·인도네시아 CEPA
- 한·중·일 FTA
- RCEP

※15개국=아세안(10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한국 제외)

협상재개 여건조성중(8개국)

- 한·일본 FTA
- 한·멕시코 FTA
- 한·GCC FTA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동남아시아국가연합(10개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2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크로아티아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정리 이진원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2015년 통상환경 3대 이슈

2015년 주목해야 할
통상환경의
주요 변수 3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1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 메가 FTA 추진 논의 가속화

RCEP, TTIP(미·EU 간 FTA) 등이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중 FTA 타결 및 향후 정치일정(2016년 미국 대선) 등을 고려할 때 주요 메가 FTA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중·일 FTA, RCEP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협상 진전이 어려웠으나 한·중 FTA 타결(2014년 11월 10일)이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을 세우고 6차례 협상이 진행됐으나 상품 양허 협상지침(modality),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예상되지만 올해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10개국과 AFP(ASEAN FTA Partners) 6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이

참여하고 있는 RCEP은 201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 중이다. 한편 지난해 말 APEC 정상회의(2014년 11월, 베이징)에서는 APEC 국가 간의 FTA인 FTAAP의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를 개시해 2016년까지 결과물 도출 추진(베이징로드맵)을 합의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는 TPP 및 TTIP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FTAAP 제안 등으로 인한 미국·일본 중심의 TPP 논의 가속화 가능성, 미국 중간선거(2014년 11월) 이후 TPA(무역촉진권한)에 우호적인 공화당의 의회 장악, 2015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대선정국 돌입 등의 이유로 TPP는 올 상반기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과 EU의 8억 명 거대시장 창출을 위한 TTIP 역시 연내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산 식품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주요 메가 FTA 추진 현황

지역	FTA	추진 현황	비고
아시아·태평양	한·중·일 FTA	·2014년 9월 제5차 협상 개최 ·2014년 11월 제6차 협상 개최 ·2015년 1월 수석대표 회의 개최 예정	·2014년 연내 주요 합의를 목표로 했으나 해 넘겨 합의 도출 도모
	RCEP	·2014년 12월 제6차 협상 개최 ·2015년 2월 제7차 협상 예정	·2015년 연내 협상 타결 목표
	TPP	·2014년 12월 수석대표 회의 개최 ·2015년 2월 각료회의 개최 예정	·2015년 연내 협상 타결 목표
	FTAAP	·2014년 11월 베이징로드맵 채택	·2016년 공동연구 결과 도출 목표
대서양	TTIP	·2014년 9월 7차 협상 ·2015년 2월 8차 협상 예정	·2015년 연내 협상 타결 목표

(주)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 중, 일,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TPP(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2개국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아·태 자유무역지대): APEC 21개국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자유화협정): 미·EU FTA

2 보호무역조치 기조 확대 전망… 철강 및 화학 집중

전 세계 무역구제조치 조사 개시 건수(2013년)는 338건으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이러한 조사개시가 조치부과로 이어질 경우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개도국뿐만 아니라 반덤핑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무역구제조치 조사 개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진국에 대한 조사개시 건수는 전년 대비 51건 증가한 122건(2013년)으로 반덤핑 중심으로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조사개시 건수는 216건(2013년)으로 2012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2014년 11월 발표된 G20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무역제한조치는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8.7건에서 하반기 18.6건으로 감소하며 안정세를 보여 보호무역주의가 견제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산업별로 보면, 주요 산업 가운데 철강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기조가 유지되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덤핑 제도가 강화되고 있고, 화학제품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對)한국 무역구제조치(수입규제 조사개시)는 27건(1~11월)으로 2013년 47건에 비해 조사개시 건수가 감소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강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반덤핑 제도와 아세안 국가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은 여전히 우려가 제기된다. 조사개시는 다소 완화됐지만 조치부과로 이어질 경우와 추가적 제도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3 무역원활화협정, ITA 확대 등 WTO 다자간 협상 추진 가속화

올해는 무역원활화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 등 주요 다자협정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 설립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상인 발리패키지(2013년 12월)의 핵심인 TFA는 본래 2015년 7월 발효를 목표로 지난해 7월까지 WTO 부속서에 포함시키기 위한 의정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인도의 반대로 지연됐다. 인도는 TFA 자체보다는 식량 안보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TFA와 연계해 왔으나, 지난해 11월에 대한 이견을 미국과 인도가 해소하면서 11월 27일 WTO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TFA 의정

서가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내 발효 가능성이 높아졌다.

1997년 발효된 ITA는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등 203개 IT제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골자로 하며 참가국은 78개국으로 세계 IT무역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ITA의 무관세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54개국이 참여한 ITA 확대협상은 2012년 5월 협상이 개시됐으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협상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APEC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은 200여 개 이상의 품목 관세철폐에 합의하며 올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개정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협정)는 15개 참여국 가운데 한국, 아르메니아, 스위스를 제외한 12개국만 협정이 발효(2014년 4월)됐으며, 지난해 10월 몬테네그로와 뉴질랜드의 가입이 승인됐다. GPA 참여국이 개방한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1.7조 달러로 추정되며, WTO 사무국은 개정 GPA 발효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8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정 협상 때 울산광역시 및 서울(25개), 부산(16개), 인천(10개)의 자치구 51개와 도시철도공사 7개 기관을 양허 대상으로 추가해 발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본문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Trade Brief: 2015년 통상환경 전망 및 주요쟁점(박지은·명진호, 2014.12.30)〉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글 이진원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의
주요 내용과 의의

한국은 수출 증가, 베트남은 투자 유치 기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휘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앞줄 왼쪽)이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쯔쑤 베트남 총리(뒷줄 왼쪽)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실질 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한 후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2014년 12월 10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베트남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베트남 FTA가 실질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양국은 12월 8~10일 서울에서 한·베트남 FTA 9차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투자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한·베트남 FTA는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 간 9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실질 타결에 이르렀다. 한·베트남 FTA는 한국의 1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로,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 중 한국의 제2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이다.

한·베트남 FTA의 의의

① 수출·투자 선순환을 통한 상생형 FTA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핵심적인 조립·가공단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로, 현지 투자기업을 위한 소재·부품수출이 대(對)베트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국은 합성수지, 편직물, 아연도강판, 자동차부품 등 주요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출 증가를,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대세계 수출 증가의 효과를 갖는 상생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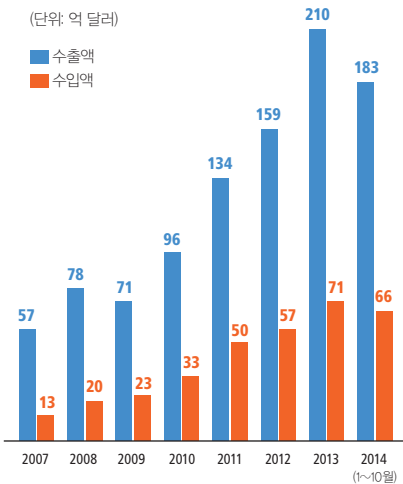
②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도움

섬유(면직물, 편직물), 자동차부품(엔진, 에어백, 서스펜션 등) 등 기술력을 갖춘 한국 중소기업 품목을 다수 개방해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한·아세안 FTA에 비해 원산지 절차 및 증명서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을 제고하고자 했다.

③ 급성장하는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 확대

베트남은 인구 약 9,000만 명의 떠오르는 신

한국의 대(對)베트남 교역 현황



※2013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수출 6위, 수입 15위의 교역 파트너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흥시장이자 연평균 5~6%의 경제성장국으로, 향후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스킨로션, 파우더), 생활가전(전기밥솥, 믹서기, 전기다리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과 같은 소비자 품목을 다수 개방했고, 이를 통해 기존 소재·부품 중심의 대베트남 수출 품목을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자 등으로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기존 한·아세안 FTA 상 베트남은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등의 분야를 이미 개방)해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예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향후 베트남측이 제3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협상을 체결할 경우,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보장받아 추가적인 시장개방 기회를 확보했다.

한·베트남 FTA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

구분	한국				베트남			
	품목수(개)		수입액(달러)		품목수(개)		수입액(달러)	
전체	12,232		5,717,642,288		9,558		15,508,115,790	
한·아세안 FTA*	11,168	91.3%	5,244,641,856	91.7%	8,256	86.4%	13,374,086,145	86.2%
무관세	4	0.0%	0		65	0.7%	179,932,363	1.2%
즉시철폐	87	0.7%	72,329,754	1.3%	—		—	
3년 철폐	216	1.8%	12,930,981	0.2%	14	0.1%	267,503,326	1.7%
5년 철폐	134	1.1%	43,140,259	0.8%	47	0.5%	19,069,941	0.1%
7년 철폐	7	0.1%	2,997,948	0.1%	30	0.3%	34,011,231	0.2%
10년 철폐	48	0.4%	40,195,248	0.7%	106	1.1%	405,553,016	2.6%
15년 철폐	3	0.0%	242,052	0.0%	3	0.0%	11,173,386	0.1%
소계	495	4.1%	171,836,242	3.0%	200	2.1%	737,310,900	4.8%
총합계	11,667	95.4%	5,416,478,098	94.7%	8,521	89.2%	14,291,329,408	92.2%

*한·아세안 FTA상 일반품목(normal track)의 경우, 우리측은 관세철폐가 완료되었고, 베트남측은 품목수 기준 2015년에 90%, 2016년 95%까지 관세철폐되어, 2018년에 무관세 적용 예정.

**한·베트남 양측은 예외 없이 모두 선형철폐(매년 일정 비율(1/N)씩 감소). 수입액은 2012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④ 베트남 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쟁환경 개선

베트남은 기존 한·아세안 FTA상 후발 참여국으로 분류돼 관세철폐 일정이 늦고 전반적인 자유화수준이 낮았다. 또한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6월) 이후 일본과 베트남이 경제 동반자협정(EPA)을 체결(2009년 10월 발효)하면서 주요 수출품목들이 일본의 경쟁품목에 비해 불리한 경쟁조건을 맞았었다. 한·베트남 FTA는 자동차부품, 철강,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품목에 대한 양허를 획득한 동시에 타이어, 일부 면직물·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의 추가 양허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⑤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투자자 보호

한국은 일본에 이은 베트남 제2위 투자국으

로(건수 기준 1위), 약 3,32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한·베트남 FTA는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송금 보장, 수용 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 절차 개선 등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⑥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권리자에게 콘텐츠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고, 실연가 및 음반 제작자에게 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기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상의 수준 높은 저작권 조항을 채택해 베트남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글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베트남 FTA 타결과
한·ASEAN FTA의 과제

한·ASEAN FTA 추가 자유화의 마중물이 되다



한·베트남 FTA 타결은 양국간 산업네트워크 및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013년 베트남 북부 타이응웬에서 열린 삼성전자 휴대전화 생산공장 착공식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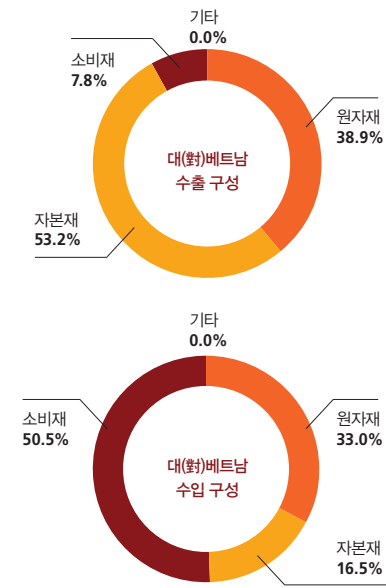
2007년 한·ASEAN FTA가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개방성과 활용률로 인해 한·ASEAN FTA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¹⁾ 이에 한국·ASEAN 양측은 약 10회에 걸친 이행위원회를 통해 추가자유화, 원산지증명 제도개선 등 추가 자유화 조치들을 논의해왔다. 동시에 주요 ASEAN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를 통한 추가 자유화도 추진되어 왔는데, 2014년 12월 한·베트남 FTA 타결로 한·ASEAN FTA 추가 자유화의 첫 결실이 이뤄졌다.²⁾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 원자재·자본재가 90% 이상

베트남 외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요 ASEAN 회원국들과의 양자간 FTA 협의가 진행 중이나, 대다수가 아직 충분히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이번 베트남과의 FTA 타결이 한·ASEAN FTA 추가 자유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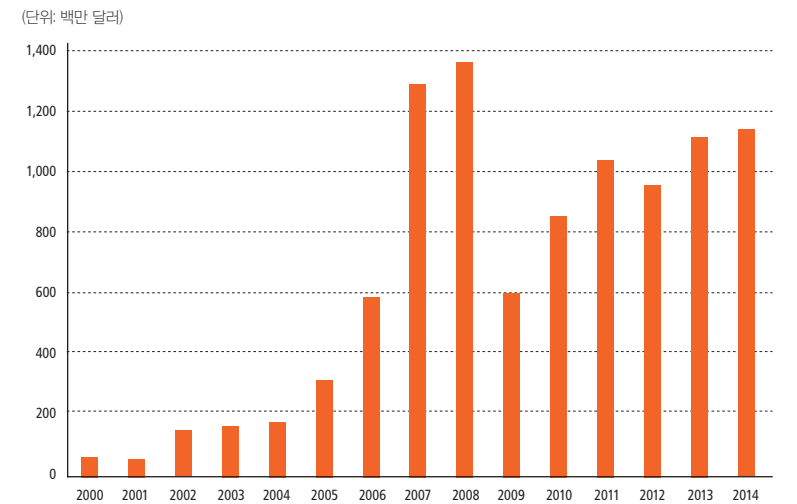
베트남은 한국의 8대 교역대상국(6대 수출국, 14대 수입국)으로, 지난 10년간 양국간 교역 규모는 2004년 약 39억 달러 규모에서 2013년에는 약 283억 달러 규모로 6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2013년 무역수지는 약 139억 달러로 중국, 홍콩, 미국에 이어서 4위를 기록한 주요 시장이다. 한편 한국의 10대 교역국 중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전통적인 주요 거대 시장과 사우디, 호주, 카타르 등의 주요 원유 공급처를 제외하면 베트남이 유일한 신흥 개도국이다. 2013년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한국의 원자재 및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 이상으로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이 베트남 현지생산을 위한 부품·원자재 및 설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교역 구조는 한국·베트남 간에 형성된 생산네트워크 혹은 현지생산 후 수출로 연계되는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이 형성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해외직접투자 기준으로는 베트남은 한국의 4위

한국의 성질별 대(對)베트남
수출입 구성(2013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對)베트남 해외직접투자 투자액 추이
(2000~2014년 9월)



주: 2014년은 1~9월 수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투자대상국으로 홍콩(3위)을 중국으로 감할 경우에는 3위로 볼 수 있으며, ASEAN 회원국 중에서는 1위 투자대상국이다. 연도별로는 2005년부터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가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해 2008년 투자액 13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추이는 기존에 섬유·봉제업 중심이던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전기·전자 부문과 같은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중에서는 삼성전자 등의 전략적 투자가 가장 주목을 끄는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2009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처로 베트남을 선정하고, 베트남 북부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베트남의 산업고도화를 견인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SEV)은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2013년 매출 약 255억

달러로 베트남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제조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SEV의 2013년 수출액은 약 215억 달러 규모로 베트남 수출 총액의 약 16%의 비중을 차지했다.³⁾ 최근에는 LG 전자도 베트남을 백색가전과 휴대전화 부문의 전략적인 생산처로 선정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양국간 교역 및 산업협력 구조가 휴대전화 및 전기전자 중심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베트남 FTA로 베트남의 전략적 위상 높아져

이와 같은 베트남의 전략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ASEAN FTA 구도 내에서는 베트남과의 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한·ASEAN FTA에서 베트남은 ASEAN 6국가(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에 비해 관세 철폐 일정 느리게 합의됐고,⁴⁾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FTA 세율이 MFN 세율

(WTO 회원국에 우선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 한·ASEAN FTA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한·베트남 FTA 타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부, 언론 각계에서 수출투자 선순환의 상생형, 친중소기업형, 내수시장 진출형 FTA 등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다.⁵⁾ 이러한 해석들도 의미가 있지만 이번 한·베트남 FTA 타결은 기존 한·ASEAN FTA의 자유화의 폭을 넓히고 개방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2013년 기준 한국의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률은 38.7%에 그침.
2) 2006년에 체결된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한·ASEAN FTA보다 이전에 체결되어 한·베트남 FTA와 같은 추가 자유화의 의미는 없음.
3) 이재호 '주간이슈분석-베트남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국으로 본격 부상(2014)',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EMERICs) 참조.
4) 한·ASEAN FTA의 경우 한국과 ASEAN 6국가는 관세철폐 기한이 일반품목은 2012년, 민감품목은 2016년이나 베트남의 관세철폐 일정은 일반품목은 2018년, 민감품목은 2021년으로 합의됨.
5)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실질 타결(2014년 12월 11일)' 보도자료 참조.

글 이진원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2014년 수출입 실적 및 평가

2년 연속 사상 최대 교역규모·수출·무역수지 달성

2014년 한국은 중국의 성장둔화, EU의 느린 경제회복 등 불리한 무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교역·수출·무역수지를 달성하며 2년 연속 사상 최대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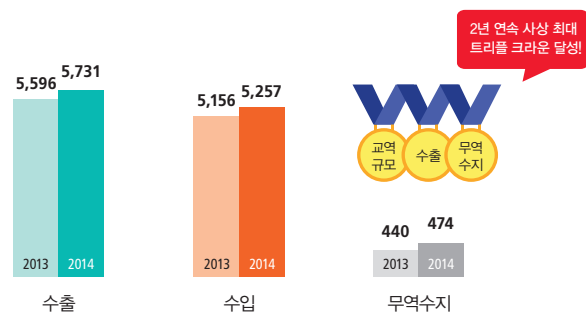
2014년 무역규모(수출+수입)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조988억 달러, 수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5,731억 달러, 수입은 2.0% 증가한 5,25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7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및 2년 연속 사상 최대 교역·수출·무역수지를 달성했다. 수출은 미국·ASEAN·EU로의 수출 확대 및 반도체·철강·무선통신기기 등의 선전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경제권별로 보면 미국 13.4%, EU 5.9%, ASEAN 3.5%, 중국 -0.4%, 일본 -6.9% 증가했다. 대미 수출은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중 수출은 4분기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석유화학이 유가하

락으로 감소했으나, 반도체·철강제품·선박·무선통신기기가 증가하며 수출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반도체가 전년 대비 9.7% 증가 627억 달러로 수출품목 최초로 수출 6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석유화학은 국내 생산설비 증설로 공급량이 증가하며 수출물량은 증가했으나 유가하락으로 4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입의 경우 자본재·소비재 수입은 증가했으나,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다. 원자재의 경우 가스(발전용)·석유제품(나프타) 수입은 증가한 반면, 원유(유가 하락)·철강(단가 하락)·석탄 수입은 감소했다. 자본재의 경우 무선통신기기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액정

디바이스, 의료용기기 등이 증가했다. 소비재는 자동차·소고기 등은 증가했으나, 쌀·옥수수 등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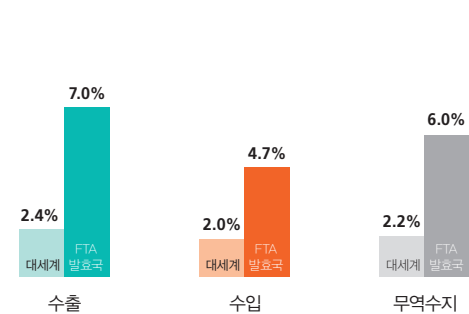
한편 FTA 발효국과의 수출은 7.0%, 수입은 4.7%, 무역규모는 6.0% 증가(1~11월 누계 기준)하며 FTA가 한국의 무역 확대를 견인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48개국과 10개의 FTA를 발효했으며, FTA 발효국과의 교역규모는 전체교역의 38.8%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2012년 51.5%, 2013년 56.5%, 2014년 59.8%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FTA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수출입 실적 (단위: 억 달러)



※위 수치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12월 31일까지의 잠정치로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014년 대세계 교역량과 FTA 발효국과의 교역량 증가율 비교



※전년 대비,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2014년 1~11월 누계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COVER STORY

한·중 FTA 심층 진단 및 활용 전략



- 1 한·중 FTA의 의미와 남은 과제
- 2 한·중 FTA와 중국시장 진출 전략
- 3 한·중 FTA와 중국 콘텐츠 산업 진출
- 4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 인터뷰

글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소장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의 의미와 남은 과제

한국경제 도약의 시발점... 중국 내수시장 선점 기회

2012년 5월 협상 개시 후 30여 개월 만에 한·중 FTA는 실질 타결이라는 결말에 도달했다. 한·중FTA가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한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그 의미를 짚어보고 그에 따른 과제들을 점검해 보았다.



지난해 11월 10일 한·중 FTA 협상 타결 후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의 모습.

의미: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로 경제·비경제적 교류 확대

우선, 한·중 FTA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양국은 상품분야에서는 품목 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85% 이상을 상호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한·중 FTA를 통해 연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대(對)중수출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철폐되며,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 후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 구조를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구조로 바뀌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한·중 FTA가 양국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해를 확보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서비스 기업들의 중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정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추가적인 서비스시장 개방 가능성도 확보했다. 셋째, 상호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양국에 상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함으로써 상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일례로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거류증 발급 및 복수비자 발급 확대,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8시간 내 통관 원칙, 기업의 애로 해소를 담당할 기관(중앙·성 단위) 지정 등을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국 정부가 비관세조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조치이다.

넷째, 한·중 FTA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종래의 무역과 투자 중심 구조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협상에서 ①철강, 중소기업, 정보통신, 섬유 분야의 산업협력, ②농수산협력, ③정부조달, ④에너지자원, 과학기술, 해상운송, 관광, 문화(방송 포함),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지방협력 등 기타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연인의 이동 챗터에서는 상호 비자 발급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인력이동 1,000만 명 시대에 대비하고, 문화와 관광분야의 개방을 통해 상호 문화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의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챗터로 설치해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전자인증·서명, 개인정보보호, 종이 없는 무역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다섯째, 한·중 FTA는 한·중 관계 심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북한 지역에서 한·중 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동북아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 조속한 발효 및 추가협상, 철저한 점검 이뤄져야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중 FTA를 통해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양국 간 경제협력이 종전의 무역과 투자 중심의 구조에서 서비스 등 전방위로 확대됨으로써 한·중 경제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중 FTA는 한·중 무역 3,000억 달러, 상호 투자 1,000억 달러, 인적교류 1,000만 명의 '한·중 경제협력 3.0시대'를 여는 새로운 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를 조속히 발효시키고, 추가 분야에 대한 조속한 협상과 동시에 협정 내

용의 이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 한·중 FTA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중 FTA는 양국이 국내의 필요절차를 완료했다는 증명하는 서면통보가 교환된 일로부터 60일 또는 양국이 합의한 기간 경과 후에 발효하게 된다. 특히 한·중 FTA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국내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되지만,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추가적인 협상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조속한 협상개시가 이뤄져야 한다. 한·중 FTA 발효 이후에는 투자와 서비스분야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동 분야의 협의는 FTA 발효 후 2년 내에 개시하고, 개시 후 2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돼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미 투자협정(BIT)의 추진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네거티브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정부조달 분야 역시 한국의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이다. 정부조달은 경제협력의 한 분야로 포함해 정부조달의 구체적 의무사항 및 양허안을 규정하지 않고 중국이 GPA 가입 시 정부조달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further negotiation) 조항을 규정해 추후 한·중 FTA에 정부조달 챗터를 포함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한·중 FTA 발효 이후에는 이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협정에서는 양국의 장관급을 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를 두고, 그 아래 12개 위원회를 두어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합의사항에 있어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의 제도적 관행과 중앙-지방 간 제도와 관행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해 지방의 관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합의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창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글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와 중국시장 진출 전략

세계 최대 고속성장 국가… 즉각적·전면적 수출 나서라

지난해 1~11월 우리나라는 756만 달러어치의 진공청소기를 중국에 수출했다. 12월을 제외하고도 전년(2013년) 전체 수출액보다 91.3%나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우리의 대(對)중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래 가장 부진(0.6% 감소)한 가운데 거둔 성과여서 더욱 뜻 깊다.



중국 최대 종합박람회인 캔톤페어에 참가한 국내 생활가전 전문기업(왼쪽)과 삼성전자 중국 시안반도체공장 기공식 모습.

전기밥솥, 면도기, 화장품 등 어려움을 뚫고 좋은 대중수출 성과를 거둔 품목 가운데 소비재가 많았다. 소비재가 선도하는 중국 내수시장 겨냥 수출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됐다.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정부가 중국의 최종 소비재의 관세 철폐에 노력을 기울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내수 및 소비재 시장 개척이 이야기의 끝일까? 그건 아니다. 지난해 내내 신문지

면을 뒤덮은 기사에서 보듯이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수출 구조는 우리가 하루빨리 벗어날 여야 할 문제점으로 지탄받아 왔다. 그러나 가공무역은 여전히 우리 대중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대중수출이 극도로 부진했던 지난해 우리의 가공무역 수출은 오히려 늘어났다. 한중간의 가공무역, 즉 밸류체인(value-chain)은 한·중 FTA 시대에도 우리 기업이 잘 활용해야 할 자산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중 간 무역·투자에서 밸류체인이 활성화돼 있음을 고려할 때 한·중 FTA 이후 우리의 중국 진출전략은 이중전략(Two-tracks)이 답이다. 하나는 소비품을 비롯한 최종제품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한·중 간 분업구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확산하며 풍부하게 만드는 일이다.

중국 신시장 개척 전면적으로 나서야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완화를 이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는 우리 기업이 추진할 기본전략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품목수 기준으로 대중수출의 91%(수입액 기준 85%)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일부에서는 상당수 품목의 관세철폐가 10년, 15년 등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임을 들어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은 10년 후에 철폐된다는 뜻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이뤄진다는 뜻이다. 예컨대 관세가 10%인 품목을 10년 철폐하기로 약속했을 경우 그 품목의 관세는 발효되는 해로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품목의 91%(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출확대 전략 수립에 나설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출 상품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나 신규 수출상품화를 들 수 있다. 고급생활가전(밥솥, 믹서 등), 패션 및 기능성 의류,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 등은 현재 고관세이면서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가 예정된 품목들이다. 우리 관련기업들은 국내생산 후 수출이나 중국 내 현지생산간 비율을 조정하거나 제품 라인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 자사의 제품을 관세 철폐대상 품목으로 전환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제품의 수출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관세장벽 완화·철폐 기회는 어떤 점에서 관세철폐보다 큰 도움이 될 한·중 FTA만의 장점이자 우리기업과 정부, 관련기관의 과제이다. 중국의 개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인구와 영토가 방대하다 보니 지방마다 정책 재량권이 커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어렵기 때문이다. 화장품, 의약품, 농식품 등 일상생활용품은 물론 기계, 전기 등 주요업종에서도 우리 기업은 항상 비관세장벽으로 고통 받아 왔다.

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완화는 중국 내수시장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기회를 잘 이용할 때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3년째 7%대 성장률을 보이는 이른바 '뉴노멀(新常态)'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고속성장 시장이다. 그간의 고속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의 내수시장은 서비스화, 웰빙화, 다양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다행히 '한류' 덕택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매우 좋다. 한·중 FTA로 새로 열리게 되는 상품과 서비스 분야를 중국 시장변화와 연계해 신시장 개척으로 연결하려는 노력과 안목이 중요해지고 있다.

양국의 FTA를 이용한 밸류체인 활성화 필요

한·중 FTA는 이미 형성된 가공무역에 바탕해 형성된 한중간 밸류체인이 더욱 활발해지고 확산되는데 도움이 된다. FTA를 통한 통관 및 무역원활화 조치는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통관과 효과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져 가공무역을 촉진시킨다. 중간재에 대한 관세철폐는 기존 가공무역제도의 불안정성(중국은 수년전부터 가공무역금지 조치를 확대해 오고 있다)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가 발효 이후 한·중 양

국은 각자 체결해 온 FTA를 연계해 활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은 대한민국 투자를 통해 한·미 FTA와 한·EU FTA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에 투자진출한 우리기업은 중·베트남 간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생산-공급라인을 운용할 수도 있다.

한·중 양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역내 밸류체인 활성화 전략의 핵심은 '연구개발(R&D)-생산-공급'을 포괄하는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용이다. 이제 일방적 대중투자에서 벗어나 국내투자에도 힘쓰고, 중국 및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Inward FD)를 활성화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된다. 개별 기업은 한·중 양국, 더 나아가 동남아를 연계하는 'R&D-생산-공급' 네트워크의 재배치를 추진할 때가 됐다. 이런 노력이 쌓이면 한·중 간에 다양한 '초국경간 클러스터(Cross-border clusters)'가 형성될 수 있다. 대상지역은 인천, 평택, 새만금이 될 수도 있고 산둥성 웨이하이(衛海)나 칭다오(靑島)가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중·북 변경지역인 단둥(丹東), 훈춘(琿春)이 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분명한 것은 한·중 FTA가 이러한 밸류체인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중 FTA에 따른 대중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필자 정리)

구분	현재	한·중 FTA 이후 변화	전략
내수	상품	•(소비재)고관세 •높은 비관세장벽	•브랜드·마케팅 제고 •수출 포트폴리오 재구성
	서비스·투자	•서비스·투자 개방 저수준	•투자 개방 확대 •현지 비즈니스 내국민대우 확대
	시장 변화	•소비환경: 글로벌화, 고급화, 다양화, '한류' •경쟁환경: 글로벌기업 경쟁 격화, 중국기업 대두	•신시장 개척(수출상품화 및 신시장 개척) •서비스진출 확대
한·중 분업 (밸류체인)	상품	•(중간재)저관세, 가공무역(무관세혜택) ※단, 불투명·비일관적, 가공무역 제한 확대	•통관·무역 원활화 •관세 감면/철폐 → 가공무역 여건 실질적 개선 •양국의 FTA 네트워크 연계 활용 가능
	서비스·투자	•서비스·투자 개방 저수준	•쌍방향 투자 활성화 •투자 진입 및 이전 원활화
	시장 변화	•중국의 글로벌밸류체인(GVCs) 내 지위 제고 •한·중 GVCs의 확산·동남아시아 등	•연구개발(R&D)-생산 공간 재배치 및 확대 (국경간 클러스터 강화·다변화)

글 오광진 한국경제신문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국내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포맷을 수입해 만든 '달려라 형제'.

한·중 FTA와 중국 콘텐츠 산업 진출

세계 3위 콘텐츠 시장, 선점 기회 열린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한·중 FTA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콘텐츠 시장인 중국 시장을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중국은 소프트파워로 상징되는 자국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만리장성의 방벽을 낮추지 않고 있다. FTA 체결은 한국 기업에 이 만리장성을 넘어설 수 있는 티켓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1997년 중국에서 방영된 '사랑이 뭐길래'는 중국 내 한류 드라마의 원조로 통한다. 한류는 중국에서 '성인 동화'로 불릴 만큼 인기를 구가했었다.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하한주(哈韓族)'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냈다. '대장금' 열풍이 불어 닥쳤던 2005년 중국에서는 '대장금' 주제가 DVD 상점에서는 물론 길 가는 중국인들의 콧노래로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해 중국 문화산업의 성장성을 끌어안는 한류 전략이 서서히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5년 개봉된 한·중·홍콩 합작 영화 '칠검(七劍)'이 대표적이다. 당시 베이징에서 만난 이 영화의 한국 측 제작자인 보람영화사 이주의 대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손잡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었다. 중국의 오랜 역사에서 나오는 무궁한 콘텐츠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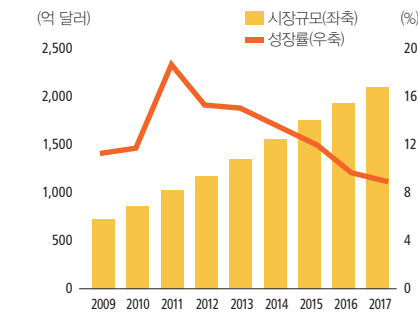
한국의 기획력 등을 결합해 세계무대로 나가는 일류 문화 상품을 만든다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한류 생존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중 FTA로 중국 내 합작사 설립 용이해져
10년이 흐른 2015년, 칠검류의 비즈니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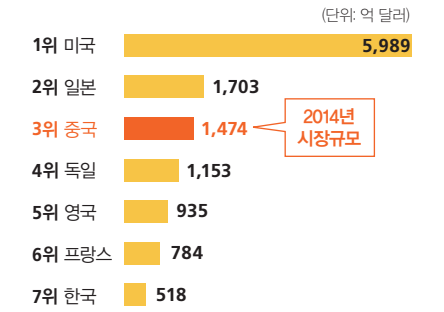
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바로 한·중 FTA 협상 타결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영화, TV 드라마, K-팝 공연, 앨범 방송용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는 것이 쉬워진다. 특히 음악 부문에선 프로젝트 합작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한국측이 49%까지 지분에 참여해 합작사를 설립, K-팝 공연 등을 공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협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들이 공동투자·제작 방식을 통해 중국 사업에 진출할 길이 열린 것이다.

발 빠른 양국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최대 검색 포털사 이트 바이두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요우쿠와 협력했고, JYP도 바이두 음원과 계약을 맺었다. SBS의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포맷을 중국 방송사가 수입해 만든 '달려라 형제'엔 SBS 제작진도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참여해 노하우를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업체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한국 엔터테인먼트업체 인수합병 등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업체를 인수해 대륙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중국 기업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168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2013년(전체)의 47만 달러보다 257% 늘어난 것이다.

중국 콘텐츠시장 규모 및 성장률



중국 콘텐츠시장의 세계 위치



자료: PWC

한·중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해 11월 드라마 제작사인 초록밤미디어는 "최대주주인 에이모션과 고현석 대표가 보유주식 340만 주를 중국의 방송콘텐츠 및 공연기획사인 주나인터내셔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금액은 주당 3530원, 총 120억200만 원이다. 주나인터내셔널은 이와 함께 새해 1월 초록밤미디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677만9661주를 100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주식 매입과 유상증자가 끝나면 주나인터내셔널은 지분 31.43%로 최대주주가 된다. 초록밤은 드라마 '울인' '주몽' 등을 제작해 한류 시장을 이끌어온 제작사다. 중국 자본이 한국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하는 것은 처음이다.

중국 자본이 한국 콘텐츠제작사 인수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향후 한·중 FTA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 중국 현지 업체들이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베끼기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중 FTA로 한국 방송사업자 소유 콘텐츠는 재방송과 복제·녹화·배포·송신 등에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방송 프로그램의 보호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기로 양국은 합의했다. 극장에서 영화를 무단 촬영할 경우의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중국에선 한국 방송을 유튜브 등에 올려 중국어 자막을 만든 다음 시청하거나 방송 포맷을 베껴 만드는 게 흔했다. 중국 자본은 콘

텐츠 제작 뿐 아니라 유통망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말 중국계 투자회사인 오리엔트스타캐피탈이 5,000억 원에 메가박스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온 것이 대표적이다.

방송 포맷 베끼기 등 대책 빠진 것은 아쉬움

정부는 한·중 FTA를 계기로 콘텐츠 대중국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콘텐츠지원센터를 설립해 중국 수출 관련 법률, 기업 협상, 세금, 지식재산권, 계약서 작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중국 시장에 맞는 핵심 콘텐츠 육성과 지역별 세분화 전략 등을 통해 올해 15억 달러 수준인 콘텐츠 분야 수출 규모를 2018년까지 25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하지만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을 짜깁기한 중국 영화 '별에서 온 상속자들'처럼 방송 포맷 베끼기가 한·중 FTA 협정문(안)에서 빠진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온라인뉴스와 같은 미디어콘텐츠의 무단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12월초 조선일보 중문 사이트가 올린 '도민준 씨의 경쟁상대는 누구인가'란 기획 기사를 한국망 등 중국 사이트들은 불법 복제를 넘어 저작권이 자기들이 있는 것으로 명기해 놓기도 했다. 하지만 마땅한 제재방안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FTA를 한·중 문화산업 간 고속도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것이다.㉠

글 우중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인터뷰: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

“한·중 FTA는 양국 모두에 이익... 연내 발효를 희망합니다”

추귀홍 주한 중국 대사와의 인터뷰는 섭외에는 생각보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인터뷰 당일에도 명동에 위치한 대사관을 방문한 취재진을 추 대사는 반갑게 맞았다.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하는 한·중 관계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추 대사는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함께하는 FTA’를 통해 FTA를 홍보하는 것을 흥미롭게 여기기도 했다.

한국 오시게 된 소감이 어떠하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4년 2월 주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특명 전권대사의 직무를 맡아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주한대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중국의 동북아지역 외교업무를 담당했었고, 한국으로 여러 번 출장도 왔었기 때문에 한·중의 우호적 관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대사관 생활 중에 시진핑 주석의 한국 공식방문과 같은 중대한 외교활동을 함께 했었고, 중국의 여러 대표단들과 한국 관련 부서들 간의 다양한 우호적 활동 및 업무 협의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계 인사들과 자주 왕래하고, 부산과 울산 등 여러 지방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한·중 양국의 우정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 의지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현장에서 눈여겨볼 수 있었고 내가 그 과정에서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국에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쌓았고, 앞으로 한·중 친선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은 우호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한·중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양국의 발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임기의 양국정부 출범 후,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적인 상호방문을 실현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서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의 한국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국 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 아시아진흥을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 세계의 번영을 추진하는 동반자 등 ‘4대 동반자’로 발전하자고 제의함으로써

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을 마련했습니다.

한·중 경제협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경제협력은 한·중 관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또한 가장 전망이 밝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미 수년 간 한국의 가장 큰 무역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고 한국은 중국의 3번째 무역 대상국이자 5번째 투자유치 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며 양국의 경제융합은 꾸준히 향상돼 왔습니다. 세계경제 회복 속도가 느렸던 2014년에도 한·중 경제협력은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중국 측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양국 무역액은 2,64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5.57% 성장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중국의 전체 대외무역 성장속도보다 2.39% 높고, 도착기준으로 한국의 대중투자액은 35.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02%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대중국 외국인투자유치의 성장속도보다 22.52% 높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한국투자액은 4.46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대비 106.4% 성장했고, 같은 기간 중국의 대외투자 성장속도보다 94.5%나 높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경제협력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재 양국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있으며, 양국 지도자들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실무적인 협력 추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진핑 주석은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양국의 경제협력을 심화·발전자는 일련의 공동된 인식을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연내 한·중 FTA 타결 노력, 서울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설립, 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협력 강화 등이 포함돼 있는데, 관련 합의는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중 경제가 안정적이면서도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해 양국 경제협력에 더욱 광범위한 발전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통해 발전과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거대한 투자와 소비에 대한 새 수요가 있으며, 한국은 창조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국의 인적교류가 꾸준히 심화되며 경제협력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 여론의 토대가 더욱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국의 각계 인사들은 떠나없이 경제협력이 어떻게 양국의 발전과 국민 복지를 증진시킬지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2013년에 한·중 양국을 왕래한 국민의 수를 보면 800만 명을 넘어섰고, 2014년엔 1,0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이 여전히 불안정해 유가와 환율 등 경제파동의 요인들이 한·중 경제협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양국 지도자들이 이뤘던 공동의 인식을 구체화하며, 한·중 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통 제조업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적인 신흥 산업, 예를 들어 신에너지, 신소재, 환경보호, 인터넷과 전자통신, 스마트제조, 바이오, 저탄소 녹색성장 및 위안화 자산투자, 국외 전자상거래 지불 등과 같은 서비스산업 등에서 호혜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FTA가 기존의 양국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중 양국 지도자들의 높은 관심 아래, 양측은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의 실질적 협상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협상이 ‘높은 수준의, 전면적인, 대체적으로 균형잡힌’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과 한국이 각각 세계에서 첫 번째와 아홉 번째로 큰 상품 무역국가로서,

이 두 개의 무역대국이 FTA를 발효하면 총 무역액과 FTA 활용 수출입이 가장 높게 되는 것입니다. 양국의 상품무역 자유화율은 품목수 90%, 수입액 85%일 뿐 아니라, 중국은 처음으로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이 협정은 상품무역과 서비스·투자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 등 11개 규칙 분야도 포함해, 특히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조달, 환경 등 '21세기 경제무역 의제'를 포함한 아주 광범위한 FTA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으로, 한·중 FTA가 양국의 이익 균형을 실현함으로써 중국과 한국에게 모두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교역 분야의 경우, 현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한국의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 거대한 중국시장의 품목수 기준 91%의 상품이 무관세로 전환되면 한국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큰 수출시장으로서 FTA 체결을 통해 품목수 92%, 수입액의 91% 상품이 무관세로 전환됨으로써 향후 중국의 수출에도 매우 중요한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서비스무역 분야의 경우, 중국은 한국측 관심사인 영상·음악 등의 공동 제작, 관광, 환경문제 등을 해결했고, 한국은 쿼터 배, 건축, 의료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측의 핵심적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양국은 또한 투자자와 다국적기업 내부 왕래자에 대해 2년 기한의 취업과 체류허가증을 부여하고, 비즈니스 방문객들에게는 1년 기한의 복수 비자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양측의 상호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크게 활성화하리라고 믿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되면 양국의 경제협력 수준은 본격적으로 높아지고, 시장융합이 촉진되며, 산

업가치사슬이 재조정되고, 경쟁력이 향상되고, 역외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무역과 투자의 기회 및 일자리가 창출돼 양국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각계에서는 한·중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전반적으로 환영하며, 되도록 빨리 정식 서명을 거쳐 FTA를 발효시킴으로써 관련 분야의 관세장벽 완화, 상호 투자 및 인적 왕래 촉진, 보다 많은 경제협력 성과와 국부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둬으로써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과 한국이 함께 노력해 이 협정이 2015년 연내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해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중국측에서는 한·중 FTA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측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FTA 타결은 대체적으로 이익 균형이 잘 이뤄졌고 서로 윈·윈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단순히 '내가 이기고 내가 져야'와 같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변증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울러 변화의 추이에 따른 시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한·중 FTA 협상을 하면서 양국은 시장개방과 민감품목 보호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각자 FTA 대상 상품 가운데 10%의 상품을 예외로 처리해 관세철폐에서 제외시키거나 부분적으로 관세철폐해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들을 잘 보호했습니다. 나머지 90%의 제품(즉 최종적으로는 무관세로 관세철폐함)에 대해서도 짧게는 5~10년, 길게는 15~20년의 과도기를 설정함으로써(단계적으로 관세인하하도록 해) 해당 산업에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주어 급격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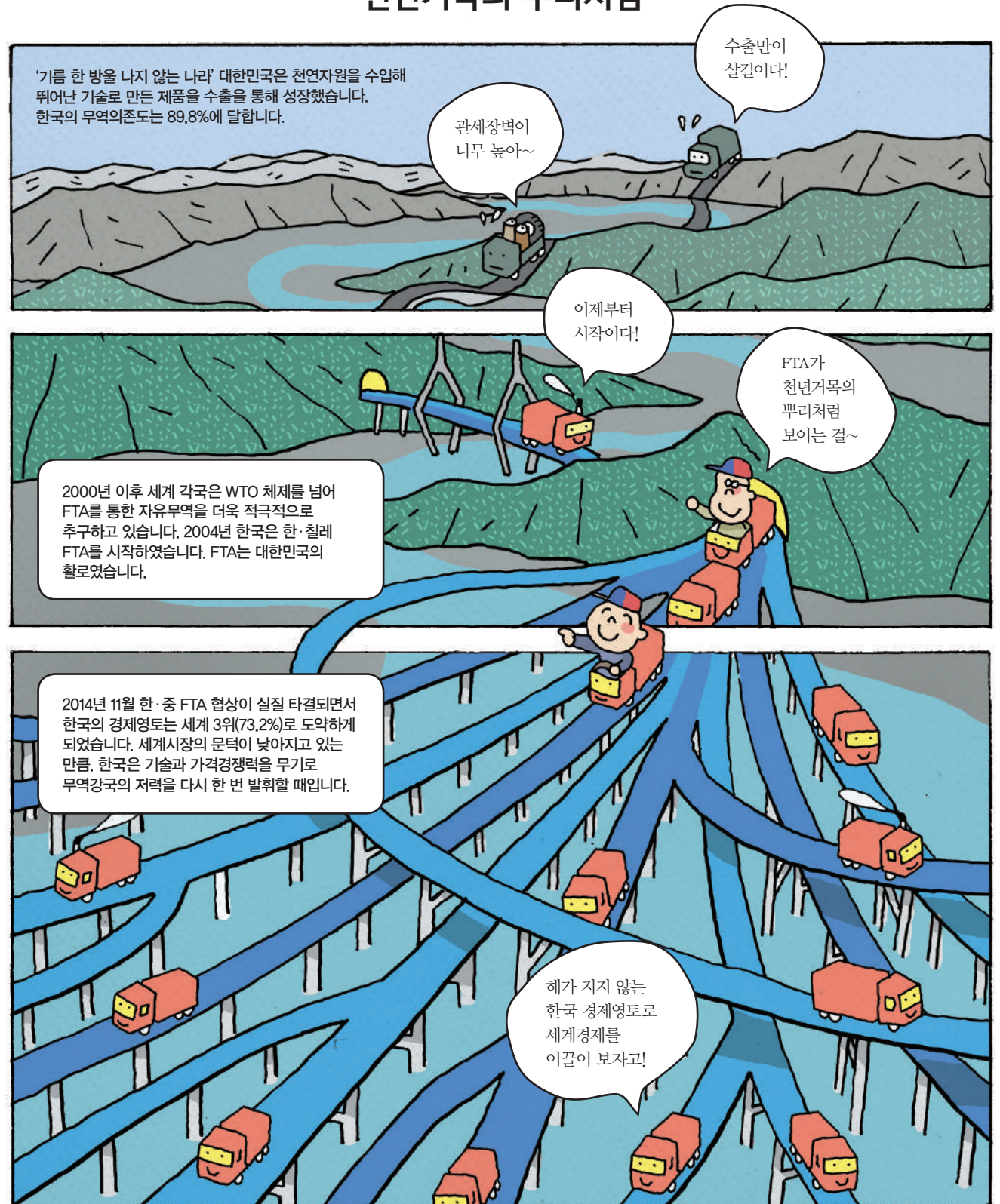
한·중 자유무역 협정은 양국 간의 경제무역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러한 제도의 성패는 양국 기업의 참여와 응용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판가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서명 이후 양국은 협정문을 공개하게 될 것이니 그 때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한·중 자유무역 협정을 활용해 더욱 실질적 협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관련 협회는 관련 제도를 마련해 기업계 등에 한국이 체결한 FTA를 홍보하고 기업들의 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함께하는 FTA'는 아주 좋은 공익적 홍보의 창구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 각계와 교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한·중 FTA를 중국과 한국 기업들에게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기업들이 이 협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하도록 할 것이며, 이 협정이 한·중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엔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추기홍(邱國洪) 대사는

- 1957년생
- 1981~1983년 중국외교부 아시아국 직원
- 1983~1987년 주 일본 중국대사관 직원, 주재관, 3등서기관
- 1987~1991년 중국외교부 아시아국 3등서기관, 2등서기관
- 1991~1995년 주 일본 중국대사관 2등서기관, 1등서기관
- 1995~1998년 중국외교부 아시아국 부과장, 과장
- 1998~2003년 주 일본 중국대사관 참사관, 공사참사관
- 2003~2006년 주 오사카 총영사(대사급)
- 2006~2008년 중국외교부 아시아국 부국장
- 2008~2011년 네팔 중국 특명전권대사
- 2011~2014년 중국외교부 섭외안전사무국 국장
- 2014년~현재 주 대한민국 중국 특명전권대사

카툰 안중만

천년거목의 뿌리처럼



FTA는 게임의 무대를 넓힌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FTA 전략의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FTA는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글 이진원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2014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제다(최우수상 공동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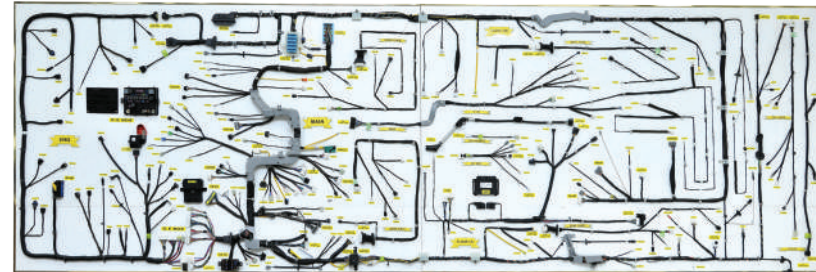
자체 인력으로 FTA 활용 시스템 개발... 어떤 FTA가 체결돼도 걱정 없어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제다(ZDA)는 자동차용 배선을 생산해 완성차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로, 직원 수 307명, 매출 806억 원, 수출액은 약 200억 원(2013년 기준)이다. 직수출도 하지만, 고객사인 완성차업체의 요청으로 국내용인 원산지확인서 발급 건수가 비교적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으로 이뤄져 있지만, 그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적 신호의 전달이 필수적이다. 과거의 자동차는 운전대, 가속페달, 브레이크페달, 변속기 등을 기계적으로 제어했지만, 지금은 모두 전기적 신호로 작동한다. 가속페달은 단지 전기적 신호를 엔진에 전달할 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운전대(Steering Wheel)조차 움직임을 감지한 센서가 조향장치(랙&피니언)

의 모터를 돌리는 것이지, 실제 사람의 힘으로 앞바퀴의 각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운전하는 즐거움을 위해 아날로그적인 조작장치들을 남겨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엔진, 조향장치, 브레이크, 변속기 등의 주요 장치 외에도 헤드램프, 쉐루프, 파워시트, 전동 사이드미러, 시트히터, 와이퍼, 주차보조장치 등 무수한 장치들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동차용 배선을 통해서다. 사용자는



사람의 신경계와 비슷한 자동차용 배선에는 약 1,500가닥의 전선이 들어가며, 이를 모두 이으면 약 2km에 이른다(체어맨W의 경우 1,530가닥, 2,020m). 자동차용 배선을 만드는 데는 섬세함 손재주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많은 편이다(오른쪽).



이 존재를 알 수조차 없지만, 여기서 하나의 오류라도 발생한다면 그 자동차의 안전과 편의는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마치 사람이 신경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서 오류가 생기면 치명적 이상으로 이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사명인 제다는 '제로 디펙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Zero Defect Administration: '무결점 관리'라는 뜻)에서 따온 것이다.

사람의 신경계와 같아...불량을 제로에 도전

자동차용 배선은 생긴 것도 사람의 신경조직과 비슷하다. 가느다란 전선이 뭉쳐진 중심부는 한 손으로 쥐기 버거울 정도로 굵지만, 말단 부위는 모세혈관처럼 매우 가는 전선이 촘촘히 가지를 치고 있다. 제다의 고객사인 쌍용자동차의 최고급 자동차인 체어맨W의 예를 들면, 들어간 전선의 수는 모두 1,530가닥이며, 무게는 26kg, 총 길이는 2km에 달한다. 고급차인 체어맨W는 기본사양이 고사양이라 옵션이 단순한 편에 속한다. 그보다 낮은 급의 차들은 더욱 많은 '경우의 수가 가능하므로 배선의 종류는 더욱 복잡해진다.

공장 내에서 실제 전선을 엮는 작업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다. 빨강, 노랑, 초록, 파랑, 흰색 등 색색의 전선(색상은 40종에 이른다)들을 거미줄처럼 엮는 모습을 보면 어릴 때 하던 실놀이냐 강강술래 때 천으로 매듭을 엮는 모습이 떠오른다. 섬세하면서도 정확해야 하고, 또 반복적인 작업에도 싫증을 내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 환경 또한 안전 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위험 요소가 적고, 소음과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여성적인 공장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차종이라도 납품하는 배선의 종류는 약 300종에 이른다. 장착되는 옵션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배선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내비게이션, 후방주차센서, 후방카메라의 3가지 옵션의 경우 내비게이션, 센서, 카메라를 각각 하나만 다는 경우, 내비게이션-센서, 센서-카메라, 내비게이션-카메라처럼 2개를 다는 경우, 3개 모두 다는 경우, 그리고 아무것도 달지 않는 경우처럼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3개의 선택옵션만 따져도 8종류의 배선이 필요한데, 쉐루프, 에어백, 전동시트 등 무수한 다른 옵션들까지 합하면 한 차종에 약 300종의 각기 다른 배선이 필요해진다. 따라서 한 차종만 해도 300여 종의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하다. 제다는 현재 9개 차종(승용 8종, 미니버스 1종)의 배선을 만들고 있는데, 단순 계산으로도 2,700장(=300×9)의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하다.

원산지확인서 종류만 수천 장...수작업 불가

제다가 원산지확인서 발급 요청을 처음 받은 것은 2011년.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FTA컨설팅 지원을 담당했던 강상혁 관세사는 "전 직원이 FTA 강의를 참석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런 제다의 의욕과 달리

실무는 만만치 않았다. 4명의 직원이 엑셀을 이용해 수작업으로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천 장의 서류를 사람의 힘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제다의 여상현 품질부 차장은 "복잡한 함수수식으로 판정오류가 잠재했고, 추가되는 협정으로 서식이 늘어난 데다, 변동되는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을 수기로 입력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다는 다음해인 2012년부터 사내 프로그래머들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매달렸고, 마침내 2013년 초부터 전산을 통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제다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시스템은 모든 발효된 FTA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용 배선(Wiring Harness, HS코드 8544.30)의 세번과 원산지기준은 모든 제품이 동일하다. 따라서 원재료의 국적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다. 한국이 추가로 FTA를 맺어도 해당 FTA의 원산지기준만 추가하면 원산지확인서 즉시발급이 가능하다. 여 차장은 "자체 인력으로 FTA 활용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는 흔치 않다 보니, 이 점이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4개사 공동수상)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비결을 설명했다. 이런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제다는 2011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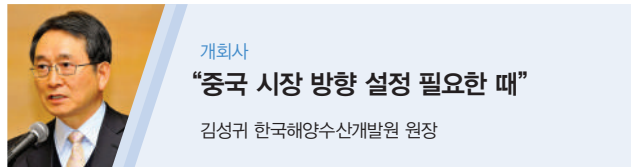
글 이진원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지상중계: 한·중 FTA 대응방안 세미나

수산업·농업 등 취약산업 보호 및 중국 수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때



12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대응방안 세미나'는 제조업 외의 물류·수산업·농업 분야 대응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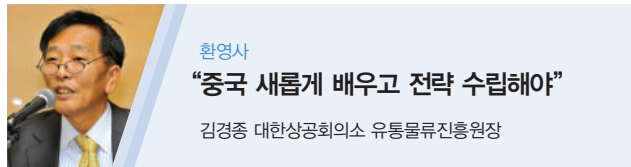


개회사

“중국 시장 방향 설정 필요한 때”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오늘 세미나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실질적 FTA 타결에 따라 농업·수산업·물류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중국은 인구 14억 명을 바탕으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GDP를 가진 'G2' 국가다. 세계 물류산업에서 구매력 기준으로 올해(2014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중 FTA는 국내 경제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 전략으로 돌아서면서 미국보다 중국 시장 확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중국 시장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한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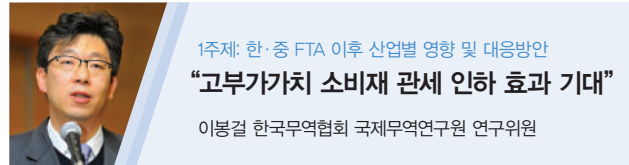
환영사

“중국 새롭게 배우고 전략 수립해야”

김경종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

안 그래도 물류 관련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김성귀 원장님이 '우리도 원래 하려 했다'고 해서 함께 하게 됐다. 한·중 FTA 시행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한·중 FTA는 중국이 한국을 '이웃국가'로 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중국이 G2가 됐고, 1인당 GDP는 아직 낮지만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을 새롭게 배우고 비즈니스를 새롭게 해야 할 때다. 우리 원은 향후 베트남과 중국 물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오늘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면 한다. 나도 많이 배우겠다.

← 한·중 FTA 협상 타결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많이 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주최로 열린 '한·중 FTA 대응방안 세미나'는 물류·수산업·어업 부문에 특화된 행사였다. 비단 한·중 FTA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 제조업만은 아닐 것이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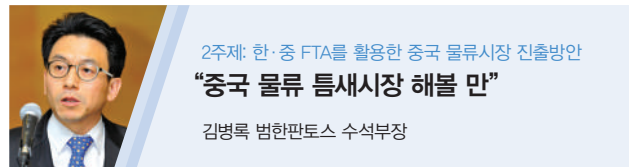


1주제: 한·중 FTA 이후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안

“고부가가치 소비재 관세 인하 효과 기대”

이봉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1991년 10억 달러에 불과하던 대중 수출은 1992년 한·중 수교,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거치며 2013년 1,459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3년 기준 중국은 교역·수출·수입·무역수지 전 부문에서 한국의 1위 파트너다. 한·중 교역구조는 자본재 비중이 높고 소비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중 FTA에서 상품교역은 우리 농산물 보호에 주력하다 보니 중장기적으로는 실익이나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관세율이 높은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의 관세가 낮아진 점은 기대되는 부분이다. 서비스시장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도해야 하고 추가 협상에서 중국측으로부터 더 많은 개방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각종 비관세장벽 해소에 주력한 점은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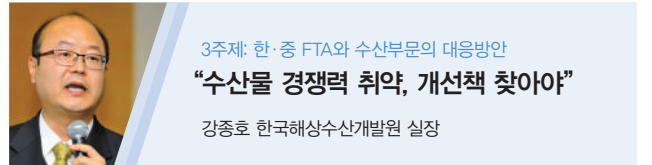


2주제: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물류시장 진출방안

“중국 물류 틈새시장 해볼 만”

김병록 범한판토스 수석부장

올해(2014년) 초 한국 귀국 전까지 중국서 14년 간 근무했다. 중국시장이 빠르게 변한다고들 하지만 실제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다. 한·중 FTA 안에 물류 관련 규정은 따로 없다. 이미 무역과 물류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류적 관점에서 볼 때 한·중 FTA의 의의는 우선 중국 내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간 동북아 분업구조에 국한됐던 한국 부품이 높아진 가격경쟁력으로 중국 소재 글로벌 기업의 공급사슬망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현지 운영 경쟁력이 확보됐고, 셋째로 서비스 영역 개방 확대에 따라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건설 등의 물량 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물류 영역이 너무 넓어서 한국기업이 이를 다 커버하지 못하므로, 거점별·아이템별로 특화하고, 한국 기업과의 동반진출, FTA 특혜 품목 중심으로 접근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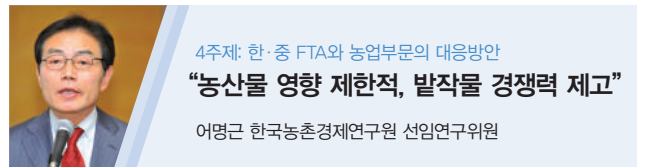


3주제: 한·중 FTA와 수산부문의 대응방안

“수산물 경쟁력 취약, 개선책 찾아야”

강종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중국의 수산업 전체 생산량은 한국의 20배 규모(2013년 기준)다. 차이가 너무 커서 비교의 의미가 없겠지만, 20분의 1만큼에 대한 경쟁력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중 FTA에서의 수산물 시장 개방도는 수입액 기준 한국은 35.7%, 중국은 100%다. 중국 시장이 100% 열리는 것이지만 한국은 오히려 수산물에서는 중국산 의존도가 높고, 한국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쟁력이 좋은지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듯하다. 수산업 분야 입장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불법어업 강력 대응 및 한·중 자원관리 협력 강화, 어업 피해 최소화 위한 대대적 자원회복사업 추진, 미래형 첨단 어선·어구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4주제: 한·중 FTA와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농산물 영향 제한적, 발작물 경쟁력 제고”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중 FTA는 다른 어느 FTA보다 농업 부문 피해가 클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협상 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우려가 반영됐음을 알 수 있다. 쌀 관세화 이후 처음 체결된 FTA로 향후 관세 인하를 통한 실질적 개방 우려가 제기됐지만, 쌀은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다. 보리·양파·돼지고기·쇠고기 등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셀러리·밀·연근·연초 등 개방 품목은 우리나라도 중국도 생산량이 많지 않은 것들이다. 주요 신선농산물이 대부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농업 분야에서 보면 사상 최저 개방 수준의 FTA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정착육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발작물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고, FTA를 활용한 중국 시장 수출 증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글 우종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제1회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전국 학술대회 전문성·열정 겸비한 예비 FTA 전문가들의 날

2013년 첫 신입생을 모집한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이 네 학기를 마치고 올해 첫 졸업생을 맞는다. 이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과정을 마치는 학생들을 위한 학술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는 심사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범상치 않은 발표들이 이어졌다.

제1회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전국 연합학술대회 수상자

<p>최우수상</p> <p>김관우(부경대)</p> <p>한·미 FTA 순원가법의 실체적 분석과 우리 자동차기업 활용방안</p>	<p>우수상</p> <p>박정준(서울대)</p> <p>대한민국의 FTA와 개성공단</p>	<p>우수상</p> <p>백형관(인하대)</p> <p>한·아세안 FTA 활용방안 연구: 국내제조확인서 활용을 중심으로</p>	<p>장려상</p> <p>김은혜(성균관대)</p> <p>요르단 QIZ와 개성공단 비교 및 시사점</p>	<p>장려상</p> <p>정복영(충남대)</p> <p>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의 환경분야 특성과 미래전략</p>	<p>장려상</p> <p>김희중(조선대)</p> <p>계층적 분석과정을 통한 FTA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연구</p>
---	--	--	--	--	---

※동일한 상 수상자의 경우 발표순서대로 배열했음.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사급 이상의 고급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국 7개 대학교(서울대·성균관대·인하대·충남대·경북대·부경대·조선대)와 손을 잡고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졸업장을 따기 위한 논문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높은 동기를 가지게 됐다. 이번이 첫 회인 학술대회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19편의 논문을 접수한 후 본선 진출작 6편을 선정했다. 논문을 제출한 6명의 예비 석사들은 이날 심사위원들과 패널, 청중들 앞에서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다.

본선 진출자 6명이 오디션 방식으로 겨뤘

개회사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전국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FTA 전문가를 키우는 과정은 지난해(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7개 대학에 개설된 이 과정이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 5개 대학(2개 대학은 가을학기에 시작)에서 이번에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FTA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출 논문들을 봤는데 모두 우수한 작품들이었다. 앞으로 2~3회 더 행사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 우수한 작품들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은 "대학 스스로 성과를 도출하고 활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정부도 향후 FTA 활용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가겠지만 각 대학들도 전문가 양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경진대회 방식은 최종 본선에 오른 6명이 15분씩 발표를 하고 4명의 전문가 패널이 5분 간 질의 및 강평을 하는 방식이다. 패널들의 평가를 통해 청중들은 발표한 내용들의 장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며 들을 수 있게 된다. 단 패널들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심사위원들은 별도로

위촉됐다.

첫 순서로 나선 김은혜 씨(성균관대)는 '요르단 QIZ와 개성공단 비교 및 시사점'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요르단 QIZ(Qualifying Industrial Zone)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FTA를 맺을 때 요르단에서 생산된 물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양자 FTA에서 양국 이외의 장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독특한 방식이 개성공단과 비슷하다. 김 씨는 개성공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WTO를 대신할 '남북무역기구(SNTO)'를 제안하기도 했다. 둘째 발표자인 박정준 씨(서울대)도 '대한민국의 FTA와 개성공단'이란 주제를 선정해 개성공단이 FTA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박 씨는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북한과의 거래는 민족 내 거래일 뿐이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MFN(최혜국 대우: 가장 우호적인 대우를 모든 나라에 제공해야 함) 위반이 된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고 얘기했다.

셋째 발표자인 정복영 씨(충남대)는 FTA 협상 때 주목받지 못하지만,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환경분야를 주제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의 환경분야 특성과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이 맺은 FTA를 보면 초기 한·칠레 FTA 때는 주요 환경수단이 57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EU FTA 때부터 12개로 비약적으로 늘어나 한·미 FTA, 한·터키 FTA에서는 13개가 평균 수준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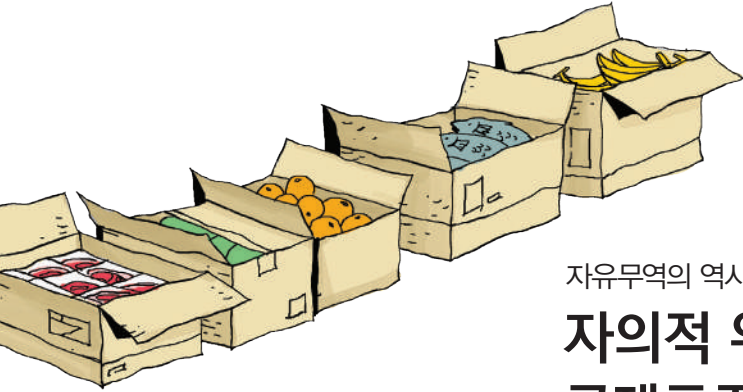
넷째 발표자인 김희중 씨(조선대)는 '계층적 분석과정을 통한 FTA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연구'를 발표했다. FTA 관련자들을 심층면접한 뒤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 FTA 정책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는 "산업별, FTA 활용 수준별 차별화된 지원정책과 FTA 활용에 소요되는 기업자원의 균형적 정책,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장기적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섯째로 나선 백형관 씨(인하대)는 '한·아세안 FTA 활용방안 연구—국내제조확인서 활용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FTA 활용률은 70%를 넘지만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여전히 30%대에 그치고 있다. 백 씨는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도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한 4가지 타입(type)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활용법을 제시했다.

여섯째 발표자인 김관우 씨(부경대)는 '한·미 FTA 순원가법의 실체적 분석과 우리 자동차기업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원산지 판정 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의 계산법 중 하나인 '순원가법'의 경우 복잡성 때문에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익이 더 많음을 실증적 사례를 통해 입증을 시도했다.

6명의 발표가 끝난 뒤 휴식시간에는 청중들을 위한 경품 추첨이 이뤄졌는데, 태블릿PC 2대와 노트북PC 1대가 최고상품으로 주어졌다. 이어 최종 심사결과 발표에서는 마지막 발표자인 김관우 씨(부경대)가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세관에서 근무하는 그는 지난 2년간 미국 세관 관계자와 국내 자동차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순원가법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였다. ☺



자유무역의 역사: ⑫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에 관한 협정

자의적 위생 및 검역 기준 금지... 국제표준 권장하나 의무는 아냐

세계 각국은 수입되는 농축산물에 대해 위생 및 검역 관련 조치를 적용하며, 각국이 이를 적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국제협약이 바로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관한 협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WTO SPS 협정이 제정된 배경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요즘 마트에 가면 열대지역에서 수입된 과일, 미국산 아몬드, 호주산 쇠고기, 칠레산 돼지고기 등 기존에 보지 못했던 다양한 외국산 식품들이 많이 진열돼 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물 건너온 식품들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내심 불안하다. 저장할 때 사용된 농약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인지, 축산물에 항생물질이 과다하게 사용된 것은 아닌지, 식품 첨가제가 안전한지 찜찜한 마음은 가시지 않는다. 만에 하나 유해한 해충이나 악성 가축 질병이 국내에 유입되기라도 하면, 이를 완전히 박멸하기가 어렵고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필요한 만큼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WTO가 출범되기 이전에 많은 국가들은 'GATT 제20조(b)'¹⁾에 근거해 인간이나 동식물

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농축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실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과학적 기술이나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무작정 농축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응해 온 측면이 있다. 지나치게 높은 위생 및 검역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해칠 위험이 없는 농축산물도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무역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결국, 농축산물의 위생 및 검역을 둘러싸고 국가 간 마찰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마련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WTO SPS 협정)'이다. WTO SPS 협정은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위생 및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회원국에 부여한

다. 다만,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WTO 회원국은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SPS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조치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WTO는 개별국이 적용하는 SPS 조치를 가능하면 조화시키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국제표준을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SPS 협정과 관련해 국제표준을 만드는 국제기구 3개다. 우선, 동물 위생이나 전염병에 관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 L'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이 위생검역 기준을 제정한다. 식물 질병이나 병해충과 관련해서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이 기준을 만들고, 식품 안전에 관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Co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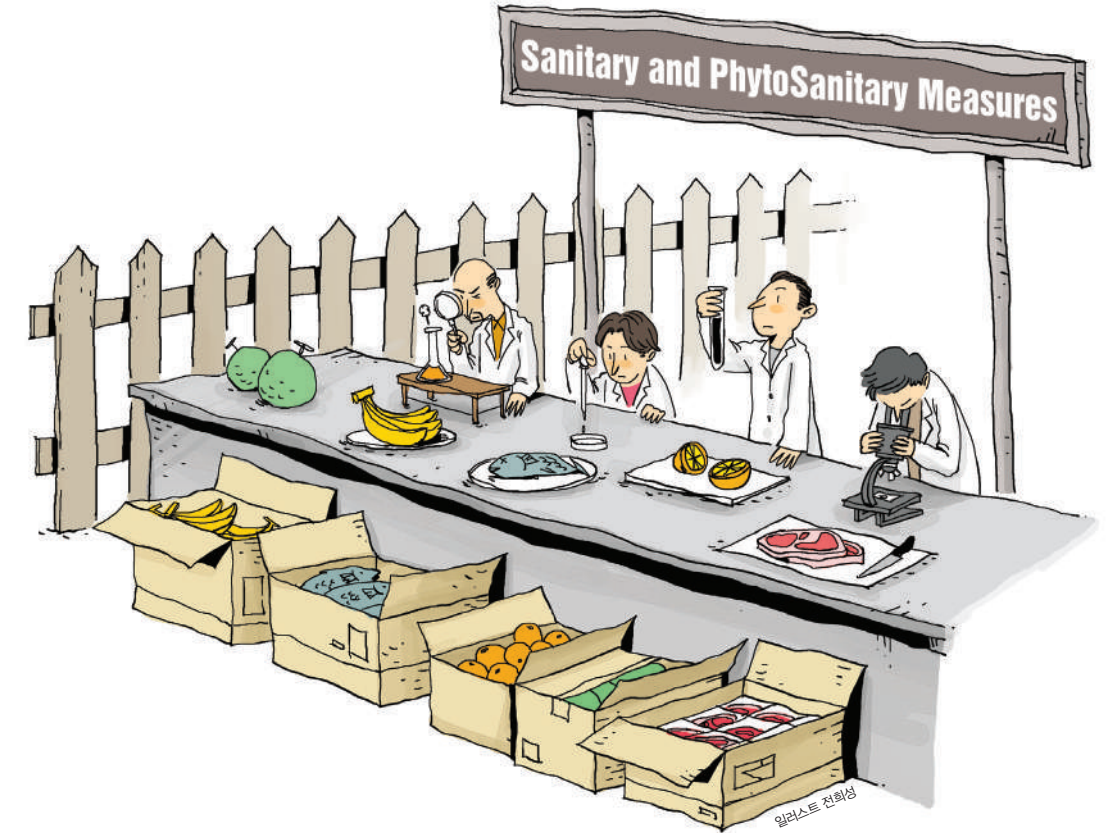
Alimentarius)가 국제표준 제정을 담당한다. 그러나, 개별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표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SPS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충분한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각국이 위험평가를 통해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서 별도의 SPS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한 국제표준을 따르도록 한다. SPS 협정은 비록 수출국의 SPS 조치가 수입국의 조치와 다르더라도 동등한 결과를 나타낼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살균을 할 경우 열처리, 방사선 조사 등 여러 살균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열처리를 하든, 방사선 조사를 하든 살균이라는 최종 목적을 같은 수준에서 달성할 경우 모든 방법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수출국 내에서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출국 내 특정 지역에서는 그 병해충

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 농축산물의 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이 구제역 상시 발생국이라는 이유로 중국산 돼지고기나 쇠고기의 수입을 막고 있으나,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어도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윈난성(雲南省)이 청정 지역으로 인정받으면 이곳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다.

FTA 협정에서는 WTO 협정 준용이 일반적
한편, 위생검역 문제는 자의성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다루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FTA 협정에서도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만들기보다는 WTO 협정을 준용한다. 다만 FTA 체결국 간에는 SPS 조치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협의채널을 별도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

협의 채널을 통해 위생 검역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FTA 이행 문제를 논의하며 양국 간 SPS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그동안 체결된 FTA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소비자들의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국가 간 농축산물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생 및 검역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위생 검역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생 검역 문제가 국가 간 통상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위생 및 검역 문제는 위험평가 등 과학적 근거에 따르도록 돼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¹⁾ GATT1994 제20조(b)는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해 적용하는 조치는 무역제한 조치의 예외로 허용한다.



일라스트 전희성

글 이해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세계의 FTA: ⑫베트남의 FTA 추진동향

AFTA, RCEP, TPP 추진…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

베트남은 2014년 5.98%의 성장률을 보이며 동남아시아 경제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30대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젊은 국가’ 베트남은 현재보다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베트남은 FTA 추진에 있어서도 다양한 국가와 역동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4년 한국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한 데 이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과의 FTA를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EU, EFTA와도 FTA 협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TPP, RCEP 등 지역경제통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베트남의 FTA 네트워크 확장은 201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SEAN 차원에서의 FTA 추진 한계 부딪혀

베트남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¹⁾을 이루는 10개국 중 하나로서 그동안 ASEAN 차원에서의 FTA에 집중해왔다. ASEAN은 정치·안보, 사회·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역공동체로 성장해왔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역내 무역 자유화에 힘써왔다.

베트남은 1995년 ASEAN에 가입한 이후, ASEAN 가입국 간의 FTA인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²⁾를 이루는 일원으로서 역내관세 철폐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상품분야

ASEAN 차원의 FTA 체결에 한계를 느낀 베트남은 TPP, EU, EFTA,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등 거대 경제권과의 전방위적 FTA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응웬 땀 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베트남의 FTA 추진동향	
구분	국가/협정명
발효(단독)	아세안 AFTA(1993년 1월), 일본 EPA(2009년 10월), 칠레 FTA(2014년 2월)
발효(ASEAN)	중국(2005년 7월), 한국(2007년 6월), 일본(2008년 12월), 인도(2010년 1월), 호주·뉴질랜드(2010년 1월)
단독	한국 FTA(2014년 12월),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2014년 12월)
내수	TPP, EU, EFTA, RCEP 등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ASEAN은 역내무역의 자유화에 그치지 않고, 역외국가와의 FTA에 대해서도 ASEAN 전체 차원에서 대응해왔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2005년 발효)을 필두로 한국(2007년), 일본(2008년), 인도(2010년), 호주·뉴질랜드(2010년)에 이르기까지 주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FTA를 꾸준히 발효시켜 왔다. ASEAN 국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ASEAN(10개국), 한·중·일(3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는 16개국과의 FTA를 내용으로 하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나아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 EU와의 FTA도 ASEAN 전체차원에서 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 이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ASEAN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역적 동질성은 가지고 있지만 국가별로 발전격차가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이질적이다. FTA를 체결할 때는 국가 간의 경제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ASEAN의 경우에는 나라별로 경제적 수준이나 상황이 서로 달라 협상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게다가 FTA를 맺을 때 상대국의 정치·외교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EU에서 ASEAN 일부 국가의 인권문제

를 제기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결국에는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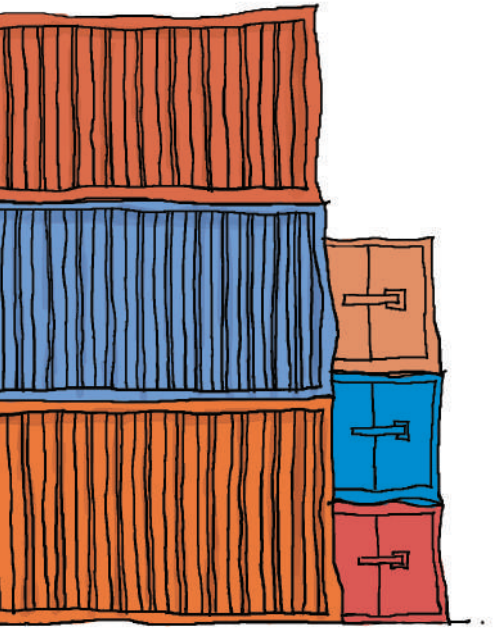
EU와 FTA 체결 임박…

TPP 타결 시 미국도 경제영토

이후 베트남은 개별국 차원에서 FTA를 활발하게 추진해 나갔다. 2009년 일본과의 EPA를 발효한 데 이어 2014년에는 남미에 위치한 칠레와의 FTA를 발효했다. 이처럼 베트남은 아시아 역내 국가를 넘어서 다양한 권역과의 FTA를 전방위적으로 맺어나가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은 2014년 12월 한국과의 FTA를 타결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과도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³⁾은 러시아가 구소련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통합을 강화하려는 시도에서 결성된 것으로, 주로 CIS(독립국가연합)⁴⁾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다. 이로써 베트남은 구소련에 속하지 않았던 국가 중 최초로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과 FTA를 맺는 국가가 됐다. 베트남은 동시에 EU(유럽연합), EFTA(유럽자유무역연합)⁵⁾와도 활발하게 FTA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EU와는 2014년 한 해에만 5차례나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10월에는 EU 집행위원장과 베트남 총리가 양국의 FTA 타결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어 조만간 타결이 예상되고 있다. EFTA와도 작년 한 해 동안 4차례의 협상을 수행하며 FT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자 FTA뿐 아니라 다자 간 FTA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CEP의 한 축을 이루며 지역 간 통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TPP 협상에 참여하는 12개국 중 하나로서 TPP 타결 시 EU에 이어 미국과의 FTA를 타결함으로써 주요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완성하게 된다. 2015년 베트남의 FTA 추진 움직임이 어느 국가보다도 주목받는 이유다.㉠

- 1)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의 안보문제 등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협력체로 1967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5개국을 중심으로 창설됨. 이후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9년) 등이 가입해 현재 10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음.
- 2)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ASEAN Free Trade Area): 1993년 발효되어 ASEAN 국가들 간 관세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국은 2010년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4개국은 2015년까지 상품분야에 대한 관세철폐 예정.
- 3)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2010년 1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창설, CIS국가를 중심으로 회원국 확대 및 경제통합을 목표로 함.
- 4) CIS(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구소련 붕괴이후 해당 국가들의 정치 및 경제 관계 유지의 바탕이 되었던 CIS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등 11개국으로 구성되며, 조지아는 2008년 탈퇴했음.
- 5)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원산지 사후검증 에피소드로 보는 시사점

FTA 원산지 관리, 지금 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의 금과 같은 시간을 말하는가 하면, 방송가에서는 ‘프라임타임(Prime Time)’과 동의어로 사용돼 시청률이나 청취율이 가장 높아 광고비도 가장 비싼 방송 시간대를 말한다. 아무튼 ‘금과 같은 시간’이라는 뜻으로 귀중하게 사용돼야 할 시간대를 말하는 것은 틀림없다. FTA를 활용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골든타임’은 과연 언제일까?

FTA환경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FTA관리는 아직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듯 하다. 지난 2년 동안 FTA사후검증지원센터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사후검증을 지원한 70여 업체들 중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한 업체를 심심하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원산지 판정이 없었다는 의미는 곧 원산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된다.

원산지관리 하지 않다가 사후검증에 혼쭐
한 업체의 예를 들어보면, 이 업체는 원산지 관

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을 받게 됐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랐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업체 스스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관할 세관이나 FTA무역 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는데, 담당자는 단순히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상담 후 복잡한 검증 대응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소명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원재료에 대한 HS코드 검토, 원재료 조달(구매)일자, 제품 생산시설 및 제조공정 확인, 원산지 판정

까지 전 과정에 걸친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세관당국이 요청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실무 담당자가 FTA 업무에만 매달리게 돼 다른 업무에도 지장을 많이 초래했다. 특히 원재료 조달 및 생산과 관련해 원재료의 금액과 입고 일자를 추적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꼬집어내 확인하고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급히 받느라 여기에 온 역량을 집중시켜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의 공급사가 이미 폐업해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할 방법이 막막해졌다. 다행



히 공급받은 물품은 판매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아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활용으로 원산지 소명을 완료할 수 있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난 후, 이 업체의 원산지 관리 담당자는 현재 회사의 FTA 관리 시스템상 또다시 있을지 모르는 원산지 검증을 대응할 자신이 없어졌고 심지어 퇴사를 생각해 보기도 했다고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다행인 것은 원산지 검증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업체가 원산지 충족여부 소명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를 바꿔 생각하면 만약, 업체가 꾸준한 원산지 관리를 해 왔다면 상당기간 조사업무에 매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해 회사 본연의 업무인 생산 또는 판매를 통한 매출증대에 집중할 수 있었음을 반증한다.

한·중 FTA 체결로

미국·EU측 원산지검증 엄격해질 것

2014년 11월, 중국과의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이제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까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관세 없이 팔 수 있는 시장의 확대, 소위 경제 영토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여러 FTA를 활용하면서 원재료 및 상품의 원산지 추적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사후검증 측면으로는 또 다른 협정이 발효되면서 그에 따른 검증 기준과 방식에 맞추어 대비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부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검증 요청서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해당 물품이 역외가공이나 제3국에서 선적되지 않음을 증명해 달라거나 재료를 구매해 한국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뤄졌음을 소명하라는 항목들을 미루어 보아,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 EU의 관세당국은 자국으로 수입된 한국산 물품은 그 원재료가 대부분 중국산일 것이라는 가정과 중국산 완제품을 한·중 FTA를 통해 무관세로 들여와서 이를 재포장해 자국으로 수출했을 것이라 충분히 의심하고 한국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EU와 미국과의 입장에서 보면 제3국인 중국산 물품의 우회수출 및 원산지 세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져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검증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은 기업이 원산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다. 다행인 것은 한·중 FTA가 발효되기까지 길지는 않으나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점이다. 체계를 구축하려면 절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유관기관과 정부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유관기관들도 이제는 일회성 컨설팅으로 업체 지원을 끝낼 것이 아니라 업체가 컨설팅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꾸준히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써야 할 때가 됐다. 지금이 바로 원산지관리체계를 갖추어 넓어진 경제영토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Golden Time)’임을 기업도 지원기관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U와 미국과의 입장에서 보면 제3국인 중국산 물품의 우회수출 및 원산지 세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져 한국 제품에 대한 검증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글 강동구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실)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제임스 조이스는 왜 ‘예술적 망명’을 자처했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신부에서 예술가를 선택한 작가의 성장소설

1910년대에 우리나라는 일본제국 군대의 침략으로 큰 시련에 놓여 있었다. 권력 엘리트층들은 친일과 항일의 갈림길에 서서 서로 배신하고 증오하며 자신의 세속적 야욕을 충족시기에 여념이 없었다. 점차 양심의 소리가 묻혀가면서 사회 전체가 ‘정신적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즈음에 춘원 이광수는 일제와 타협했고, 1917년 1월 1일 새해부터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무정’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민족의 야망보다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시작했다.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은 일본의 근대화를 수용해 우리 민족의 변명으로 나아가자는, 일본제국주의에 타협적인 근대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권력 엘리트들과 지식인들이 이광수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타협이나 저항이나’

이광수와 조이스의 엇갈린 선택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일랜드 출신 작가 제임스 조이스(1882~1941)는 22살에 스스로 국외 망명길에 올랐다. 궁핍한 망명생활 속에서도 조이스는 에즈라 파운드의 도움으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एको이스트’지에 1914년 2월2일부터 연재할 수 있었다. 이광수가 개인적 야망을 위해 식민제국과 타협한데 비해, 조이스는 ‘예술적 망명’을 자처했고 궁핍 속에서 예술가의 소명의식을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조이스는 눈병에 시달리면서 ‘더블린 사람들’(1914)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1916), ‘율리시스’(1921) 등 이른바 ‘더블린 3부작’을 발

표하면서 모더니즘의 선구자가 되었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그가 스스로 등진 조국 아일랜드와 더블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04년부터 1907년 쓴 ‘더블린 사람들’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더블린의 출판사들로부터 출간 거절을 당하다 1914년 겨우 출간되었다.

조이스가 망명을 자처한 것은 오랜 식민 상태로 ‘정신적 마비’ 상태에 빠진 조국을 정신적으로 각성시키겠다는 예술가로서 소명의식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배신이 황황하는 정신적 마비상태의 고국을 떠나 국외에서 객관적으로 고국을 바라보며 구원자적인 역할을 하고자 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조이스의 ‘더블린 3부작’이고 그 중에서 그의 자전적 소설인 ‘젊

은 예술가의 초상(이하 ‘초상’)이 중심에 있다. ‘초상’은 주인공 스티븐 더덜러스가 성직자의 길을 버리고 예술가로서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국외로 망명을 택해 방랑하는 작가 조이스의 모습은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성장을 그리고 있는 ‘초상’의 주인공으로 재현된다. 즉 ‘초상’은 주인공의 유년시절부터 대학 졸업까지의 기록으로 조이스가 어머니와 학교 교장이 제안한 성직자의 길을 뿌리치고 예술가로 소명의식을 갖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그린다. 주인공 스티븐 더덜러스는 유년시절부터 성장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 주었던 자신을 에워싼 종교, 가정, 민족이라는 중심 가치를 거부하고 급기야는 ‘세속의 신부’로서 예술에 자신을 헌신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른바 교양성장소설인 빌둥스roman(Bildungsroman), 그중에서도 예술가의 성장 과정을 그린 ‘예술가 소설(Künstlerroman)’에 해당한다. 또한 ‘초상’은 주인공의 자아 탐색과 정신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정한 플롯(줄거리) 없이 이른바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세기 모

더니즘 문학의 선구적 소설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것이다.

‘이카러스’ 부자에 투영된 조이스의 굴곡

“그리하여 그는 마음을 미지의 예술로 향하게 했다.”

‘초상’에는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의 한 구절이 제사(題詞: 책의 첫머리에 그 책과 관계되는 노래나 시 따위를 적은 글)로 나온다. 이 구절은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이 고대 그리스의 명장인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러스를 빠져나갈 수 없는 미궁에 가두겠다고 하자 다이달로스가 한 말이다. 다이달로스와 이카러스는 미궁을 탈출하기 위해 섬에 날아드는 새들의 깃털을 밀랍으로 붙여 만든 날개를 달고 섬을 빠져나가는데 아들 이카러스는 너무 태양 가까이 날다 밀랍이 녹는 바람에 바다에 빠져 죽는다. 이 제사는 주인공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환희와 좌절의 굴곡을 잘 반영한다.

‘초상’의 끝에서 다이달로스가 날개를 달고 섬을 빠져나가듯, 예술가를 지향하는 스티븐은 자유로운 정신을 억압하는 미궁 같은 더블

린을 떠나 유럽으로 향한다. 여기서 더덜러스(Dedalus)는 바로 다이달로스(Daedalus)에서 차명한 것이다. 말하자면 더덜러스라는 이름에는 제임스 조이스가 미궁을 빠져나가 명장이 된 다이달로스처럼 정신적 마비상태에 빠져 있는 더블린을 빠져나가 예술가가 되어 고국을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조이스는 ‘초상’의 마지막에 ‘더블린, 1904년. 트리에스테, 1914년’이라고 썼다. 조이스는 1904년 ‘자기유배’의 길에 나서면서 10년 후에는 기필코 화제가 될 만한 책을 쓰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마지막에 적어놓고 있는 것이다. 1914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이 ‘초상’을 완성해 파운드의 도움으로 잡지 연재를 시작함으로써 고국을 떠날 때 작가의 다짐이 실현된 셈이다. 그는 마침내 다이달로스처럼 ‘명장’이 되었는데 바로 ‘모더니즘의 명장’으로 우뚝 섰다. 궁핍한 망명생활 속에서도 처절하게 자신을 담금질한 제임스 조이스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일제에 타협하며 글을 쓴 이광수의 비슷한 듯하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보면서 새해 아침부터 새삼 인간의 길을 되새겨본다.☉



이카러스는 너무 태양 가까이 날다 밀랍이 녹는 바람에 바다에 빠져 죽는다. 이 제사(題詞)는 주인공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환희와 좌절의 굴곡을 잘 반영한다.

글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 소장(문학박사)



일러스트 전희성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수제 기타 제조명인 **엄태홍·엄홍식** 부자

최고의 재료, 최고의 솜씨로 심금(心琴)을 빛다

경기도 광주의 한적한 교외의 아담한 유럽풍 2층집에서 엄태홍·엄홍식 부자는 수제 기타를 만들고 있었다. 그간 다양한 명장들의 솜씨에 감탄하곤 했지만, 기타는 기능에 예술성까지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재주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성까지 갖춰야만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엄태홍·엄홍식 부자에게서 명품 기타란 어떤 것인지를 들어 보았다.



고 엄상옥 선생에 이어 3대째 수제 기타를 만들고 있는 엄태홍(70)·엄홍식(43) 부자.

기타는 역울한 면이 있다. 바이올린보다 만들기는 까다롭지만, 바이올린만큼의 대접을 못 받는다. 관현악에 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연주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위로가 된다. 즉 바이올린이 극도의 예술성을 추구하는 악기라면, 기타는 서민들의 애환을 보듬어줄 수 있는 친근한 악기다.

만들기가 까다로운 이유는 기타가 바이올린보다 얇은 나무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엄태홍 명인(70)은 “활대를 끊이지 않고 움직이는 바이올린은 연속적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나무가 두꺼워도 되지만, 기타는 한 번 줄을 튕기고 다음 줄을 튕길 때까지 울림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무가 얇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기타는 수명이 짧아 오래 보존된 악기가 없다.

1932년 시작된 기타 제작이 3대로 이어져

국내 클래식 기타 제조는 고 엄상옥 선생이 19세이던 1932년 기타 연주를 듣고 직접 만들 결심을 한 것이 최초로 알려진다. 엄태홍 명인은 엄상옥 선생의 아들로 1965년부터, 엄태홍 명인의 아들인 엄홍식 씨(43)는 2007년부터 가업을 잇고 있다. 보급형은 ‘다이아몬드 기타’라는 브랜드를 쓰지만, 고급품은 각자의 이름을 딴 ‘엄태홍기타’ ‘엄홍식기타’가 브랜드다.

“좋은 기타를 만드는 비결은 뭔가”라는 질문에 엄 명인은 “끝이 없다”고 답했다. 기초가 되는 건 나무 구하기다. 그런데 이게 정말 끝이 없다. 바이올린계 악기와 기타는 공통으로 독일 스프루스 나무를 최고로 친다. 아들인 엄홍식 씨는 독일 나무 전문가 이야기를 했다. 악기 재료를 공급하는 그 독일인은 1년 내내 하는 일이 조그만 트럭을 몰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통나무를 찾는 일이다. 즉 건축용으로 대량생산되는 나무와는 애초부터 다른 나무인 것이다. “나무에도 수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 독일인으로부터 나무를 사는 것부터가 힘들다. 그는 1년에 딱 50여명에게만 나무를 판다. 어렵게 나무를 산다고 해도 단골들에게 최상품을 팔고 난 뒤 남은 재료들이다. 2~3년째



좋은 악기를 만드는 데 좋은 재료는 필수다. 엄태홍 명인은 20년 넘는 나무들을 보관하고 있다.

는 조금 더 좋은 나무를 살 수 있었고, 5~6년 거래하며 자꾸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다 보면 7~8년째에 좋은 것을 보내준다. 이렇게 엄 부자는 그 독일인과 10년 넘게 거래를 틈 뒤에야 최상품의 재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구한 재료들도 최소한 10년, 제대로 만들려면 20년 이상 숙성시켜 더 이상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즉, 지금 당장 명품 기타를 만들겠다고 결심해도 10~20년이 지나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한 대 만드는 데 3개월...마음으로 만드는 것

기타를 만들 때도 재료를 구할 때만큼의 정성을 들이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겉보기엔 대량생산되는 기타와 만드는 과정은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엄 명인은 “한 과정을 마치기 전 제대로 되었는지,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또 많은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한 과정이 끝나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철학을 담는가 안 담는가가 수제와 대량생산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려다 보니 기타 하나를 만드는 데 최소 3개월이 걸린다.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은 최대 3~4대다. 즉 한 달에 3~4대밖에 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엄태홍기타’의 최고가는 800만 원이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기타다. 그 아래

로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대까지 있다. 전문 연주자급은 300만 원대다. 인터넷 오픈마켓에는 7만 원 이하 기타도 있다. 이는 악기 전용 재료가 아닌 가구용 재료 등으로 중국 등 인건비가 싼 곳에서 한 명이 하루에 수십 대씩 대량으로 만드는 기타다. 음질의 차이는 딱 차이가 스피커와 최고가 스피커의 차이다. 기타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피아노 등 목재로 만든 악기가 다 비슷하다.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기자는 기타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필자는 스피커 음질엔 민감하기 때문에 엄 명인에게 시연을 부탁했다. 엄 명인의 연주 실력은 상당했다. 기타에 인생을 바칠 정도면 연주를 배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저가 기타와의 음질 차이를 비교해 보고 싶었지만, 그런 싸구려 기타가 그 집엔 없었다. 대신 아들이 만든 기타와 자신이 만든 기타로 번갈아 연주를 했다. 아들이 만든 기타도 꽤 좋은 것이지만, 명인의 기타 소리는 그보다 더욱 맑고 깊이가 있음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유명한 기타 연주자로는 배장흠 씨가 엄태홍기타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콩쿠르 등에서 연이어 입상한 젊은 연주자 파비앙이 사용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알려진다면 엄태홍기타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

2015년 주요 FTA별 관세 인하 일정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는 201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호주 FTA, 한·미 FTA 등 기발효 FTA에 의한 관세인하가 이뤄지고, 한·EU FTA는 7월 1일에 관세인하가 이뤄진다. 2014년 12월 12일 발효된 한·호주 FTA는 발효 2년차에 접어드는 2015년 1월 1일에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이뤄져 승용차, 자동차부품, 화학제품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미 FTA, 한·EU FTA의 경우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가 완료된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계류,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단위: 백만 달러, %)

FTA 상대국	HS	품목명	대(對)한국 수입액 (2013년)	한국의 점유율 (2013년)	관세율	
					2014년	2015년
호주	8703321919	승객 수송용 차량(디젤, 1,500cc초과 2,500cc이하)	469.0	28.0	3.3	1.7
	8703241912	승객 수송용 차량(디젤, 3,000cc초과)	53.5	5.1	3.3	1.7
	8507101077	차량용 연산(Lead-acid) 축전지(승객자동차 부품)	50.2	54.9	4	3
	4810199064	종이 및 판지(양측 코팅)	35.0	60.1	4	3
	8708299193	차량용 보디의 부분품	54.8	21.3	3.3	1.7
	8512200033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 기구	25.1	13.5	3.3	1.7
	8507109078	차량용 연산(Lead-acid) 축전지	26.4	39.1	4	3
	8708944270	차량용 칼럼, 주행핸들	2.2	3.9	3.3	1.7
	3903110012	폴리스티렌(발포성)	16.1	20.8	4	3
	3903300015	ABS공중합체	13.0	59.1	3.3	1.7
	8708999182	차량용 부품(기타)	25.2	9.9	3.3	1.7
	7305120004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의 파이프라인(기타)	0.02	2.2	3.3	1.7
	8708809250	차량용 서스펜션 시스템과 부분품	8.4	27.7	3.3	1.7
	3907300014	액상 에폭시 수지	13.3	28.4	3.3	1.7
	3902300010	프로필렌 공중합체 기타	6.7	9.6	3.3	1.7
	4810299065	종이 및 판지(기계적 펄프 55%이하 포함)	1.3	16.0	5	3
미국	845129	세탁용 건조기	596.9	66.1	1.8	1.5
	8450200090	세탁기(기타, 세탁능력 10킬로그램 초과)	270.1	23.3	0.7	0.6
	4011201005	공기타이어(경량트럭용)	244.8	12.3	1.6	0.8
	3918101000	비닐타일	131.5	19.2	3.7	3.1
	3903300000	ABS 공중합체	119.3	35.7	4.5	3.9
	8422100000	크림분리기	74.7	25.8	1.6	1.4
	8481803055	게이트타입 절강제 밸브, 탭 등의 장치	67.2	13.6	2.2	1.1
	4011201015	공기타이어(기타, 버스 및 트럭용)	53.1	2.9	1.6	0.8
EU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43.1	3.5	2.9	2.5
	85131000	램프	0.6	0.1	1.9	0.9
	85219000	영상기록용 및 재생용 기기	23.5	1.5	4.6	2.3
	85272170	음성기록기(레이저판독시스템)	0.5	0.5	4.6	2.3
	852849	텔레비전 수신기(기타)	0.2	0.2	4.6	2.3
	852859	텔레비전 수신기(평판디스플레이 탑재)	28.8	1.3	4.6	2.3
	852872	컬러 모니터	38.7	0.3	4.6	2.3
	852871	모니터(디스플레이/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46.1	1.4	4.6	2.3
	87032110	가솔린 승용차(1,000cc이하) 신차	326.8	5.0	3.3	1.6
	87032210	가솔린 승용차(1,000cc초과 1,500cc이하) 신차	818.9	3.0	3.3	1.6
	87033110	디젤 승용차(1,500cc이하) 신차	113.0	0.9	3.3	1.6

[주]상대국 HS코드 기준, 표기된 관세율은 협정문에 근거해 추정한 수치이며, 정확한 최종 관세율 정보는 국내외 행정기관 참조 요망. 한·EU FTA는 7월 1일부터 관세 인하 적용.

한·캐나다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캐나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문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실무에서는 C/O라고도 씀)를 발급해야 한다. 한·캐나다 FTA의 C/O 방식은 자율발급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협정문에서 규정한 표준서식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수입신고 당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후 1년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한·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으로 서식 또한 자유롭게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 수출업체는 대부분 권고서식을 사용하는 데 비해 미국 수출업자들의 C/O는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한·캐나다 FTA에서는 규정된 표준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양국 수출업자 모두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게 됐다.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증명 방식	자율	기관	자율	기관	기관	자율	기관/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서식	통일서식	양국 각자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통일서식	자율 (권고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자율 (권고서식)	표준서식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함께하는 FTA’를 보면서 세상 FTA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FTA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수출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FTA에 관심과 성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호에는 한·중 FTA 이후 변화와 원원 전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김휘곤(울산시 북구 신천로)

일본에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것은 까다로워서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철저한 품질관리로 일본 제과업체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옹평여름딸기가 있더니 정말 놀랍고 대단하네요. 특히 일본산보다 저렴하고 위생관리에 철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더니 자부심이 생깁니다. 여름딸기 이외에도 다양한 농산물이 세계로 수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최용범(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중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제 영토는 작지만 경제영토는 세계3위가 된다는 소식을 들이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서양과자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권할 국내과자가 없었는데 한과라는 우리 전통과자를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통과자의 명맥을 이어준 무형문화재 명인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전통한과를 많이 사먹어야겠어요.

김기창(충남 서천군 서천읍)

매호 좋은 내용을 학생들 수업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등의 어려운 용어와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책을 복사해서 수업에 활용하니 확실히 알아들네요. ‘한·베트남 경제교류 및 FTA 전망’을 읽어보니 자원부국으로서 베트남의 발전을 주시하며 함께 교류해 가야 할 것 같아요.
박차영(전북 남원시 월락동)
한·중 FTA가 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월간지를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FTA와 TPP의 차이를 잘 몰랐는데 기사를 읽고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TPP 협상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임하고 있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신명갑(부산시 동구 수정2동)

정리 김보람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캐나다 FTA, 1월 1일 발효 세계 11위 북미선진시장... 자동차 등 공산품 수출 확대 기대



한·캐나다 FTA로 한국의 대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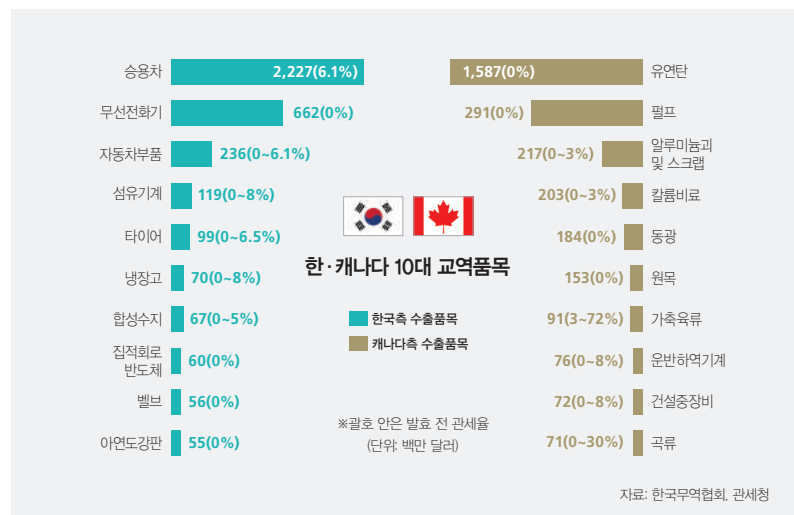
1월 1일 한·캐나다 FTA가 정식 발효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캐나다와 교환하여 올해 1월 1일 한·캐나다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캐나다 FTA는 협정문에 따라,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일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된다. 우리측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어 국내절차가 완료됐으며, 캐나다 역시 지

난해 12월 11일 내각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한 칙령(Ordin in Council)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자국내절차를 완료했다. 이로써 한·캐나다 FTA는 한국의 11번째 FTA(발효 기준)가 됐다. 캐나다는 GDP 1.8조달러, 1인당 GDP 5.2만 달러인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서 한·캐나다 FTA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캐나다·미국·멕시코 간의 FTA) 이외에 주요

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와 아시아국가로서 처음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제고 등 시장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한국은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2013년 수출 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가 3년내 철폐되며, 올해 1월 1일 1차 관세 삭감을 시작으로 2017년 1월 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자동차부품(6%)은 즉시(기어박스·클러치 등) 또는 3년내 철폐(범퍼·안전벨트·운전대 등)된다. 컬러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즉시철폐로 이미 관세가 완전 철폐됐고, 냉장고(8%)는 3년내 철폐, 타이어(승용·버스·화물차용, 관세율 7%)는 5년내 철폐돼 2019년 1월 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한편 한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돼지고기 냉장(22.5%) 및 냉동삼겹(25%)은 13년내 철폐, 쇠고기(40%)는 15년내 철폐, 맥아(북지않은 것, 269%)는 12년내 철폐된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캐나다구스'가 속하는 재킷·블레이저·잠바류(13%)는 즉시철폐로 관세가 완전철폐됐다. 아이스와인(15%)은 3년내 철폐, 바닷가재(20%)는 즉시(냉동) 내지 3년내 철폐(냉동 이외)된다.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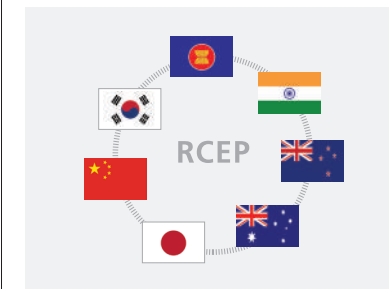
2014년 12월 22일(월요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 왼쪽)와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 외교통상부(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차관보(Deputy Secretary)가 한·뉴질랜드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 가서명된 한·뉴질랜드 FTA 영문본(가서명본)은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됐으며, 상기 협정문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양국은 2015년 상반기 중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의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동 협정은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G20 정상회의 계기로 양국은 정상회담을 갖고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RCEP 제6차 협상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6차 협상이 2014년 12월 1~5일(월~금) 5일간 인도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상은 RCEP 16개 회원국(아세안 10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공정위 등이 정부대표로 참여했다.

6차 협상은 지난해 8월 미얀마에서 개최된 제2차 RCEP 장관회의의 지침을 기초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를 비롯해, 경쟁·지재권·경제협력·법률제도 분야의 논의가 진행됐다. 상품 분야는 1차 양허안 주요 요소(1차 양허안 수준 포함),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시장자유화 방식 및 서비스·투자 챗터 협정문 주요 요소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분야에서는 협정문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졌다(제2차 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를 RCEP 협상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음).

우리측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모든 분야에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향후, 한국 정부는 상품, 서비스·투자 분야는 물론,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등 RCEP 전 분야 협상에 적극 참여해 RCEP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경제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 회의(제7차 RCEP 공식협상)는 2월 9~13일(월~금) 5일간 태국(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중 FTA TBT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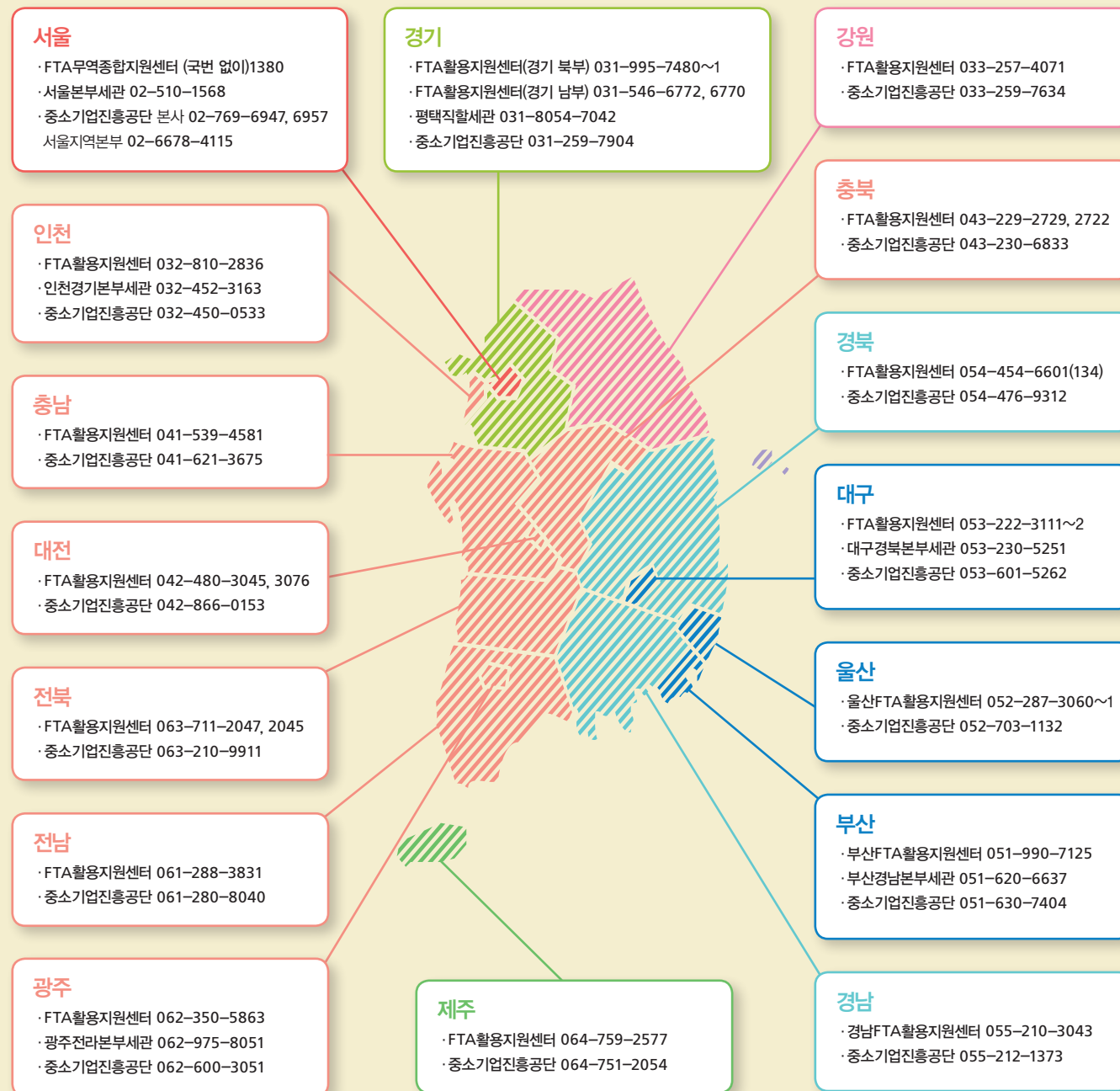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 내용 설명을 위한 '한·중 FTA TBT 세미나'를 지난해 12월 19일 충북 혁신도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열었다. 최근 국가 간 관세장벽은 완화되는 추세지만, 무역기술장벽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FTA,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등을 통해 외국의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간 국내 수출업체는 중국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와 관련해 국제시험성적서 불인정, 시험용 표본(샘플) 송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및 인증지연 등 많은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한·중 FTA TBT 협상을 통해 전기용품에 대한 국제공인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 비용 및 기간 축소를 위한 협력, 시험용 시료 통관 원활화 도모 등의 방안들이 합의되어 우리 기업의 TBT 애로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에서는 한·중 FTA TBT 협상 결과에 중점을 두고 협정 현황 및 이행계획 발표, 질의·응답 세션 등이 진행됐고, 중국 지방정부 기술규제 연구 현황(생산기술연구원)과 국내 시험기관의 중국 진출현황과 향후계획(산업기술시험원)도 발표했다.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기초발표를 통해 "한·중 FTA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고, 중국도 한국을 통해 유럽, 미국 등 프리미엄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마련을 위해 중국 시장의 비관세장벽 해소 역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전화 한번으로 기업 애로 해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는 기업의 궁금한 사항을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7** (월-금, 09:00~18:00)
중소기업 정책정보 포털 **기업마당** www.1357.go.kr

W 자금 상담

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공의 정책자금 및 기보/신보 보증관련 상담

기술개발(R&D) 상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신청부터 사업비 사용
승인까지 상담

창업 상담

법인설립절차, 공장설립, 창업보육센터 입주 문의,
창업지원 사업 신청 등 창업관련 절차/법·제도/지원
상담

소상공인 상담

소기업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온누리상품권 구매·
환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소상공인·전통
시장 지원사업 상담

판로/수출 상담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제도 등 공공구매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전시회, FTA 활용 등 수출지원 상담

인력 상담

산업기능요원제도,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등 인력지원사업 상담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